

2015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북유럽 사회정책
해외연수 보고서





보시는 순서

I. 서론	1
II. 해외연수 개요	2
1. 목적 및 추진방향	2
2. 준비과정	2
3. 실행과정	3
4. 평가과정	8
5. 연수단	8
III. 연수국 개요	9
1. 덴마크	9
1) 일반현황	9
2) 사회정책 현황	11
2. 스웨덴	18
1) 일반현황	18
2) 사회정책 현황	21
3. 핀란드	29
1) 일반현황	29
2) 사회정책 현황	31
IV. 연수 방문기관 보고	38
1. 코펜하겐시 사회복지부서	38
2. LYNGHUSET 장애인센터	45
3.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 교수님	48
4. 노인너싱홈 Attendo : Kampementets vård - och omsorgsboende	54
5. 스웨덴 국립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61
6. 아난탈로 예술센터(AAC: Annantalo Arts Centre)	65



보시는 순서

V. 결론 및 제언	73
1. 북유럽 복지의 특징	73
2. 수원시에의 함의	78
3. 북유럽 연수의 성과 및 향후 제언	82
VI. 연수단 소감문	83



I. 서론

1. 연수의 필요성

1) 기존의 해외 벤치마킹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조직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해외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해 수원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위한 복지국가 연수 필요

- 이전의 벤치마킹은 일본, 홍콩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과 문화를 지닌 아시아권 나라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왔기에 복지정책 등에 대한 이해는 용이했으나 다양한 복지정책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 이에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국가를 탐방함으로써 수원시의 복지정책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연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인 해외연수 개요, 연수국의 일반 현황과 사회정책 현황, 연수기간 동안 방문했던 기관의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북유럽 복지 연수를 통해 모색된 수원시 정책에 대한 제안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 보고서가 향후 해외 벤치마킹 등 연수활동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II. 해외연수 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1) 목 적

복지 선진지의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 복지 네트워크와 전달체계,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목 표

- 북유럽 복지국가의 전반적 복지체계에 대한 이해 향상
- 거버넌스 및 복지 전달체계 이해 및 실천 사례 습득
- 수원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 우리나라 및 수원시의 복지체계의 발전 방안 모색

3) 추진방향

- 준비 초기 단계부터 연수단이 결합하여 연수 프로그램(방문기관) 선정 등 연수단의 의견 최대한 반영
- 단순 기관 방문을 지양하고 연수국의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이해 속에서 내실 있는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사전 정책세미나 및 자체 학습 진행
- 사회복지의 민간 현장 전문가, 학계, 행정,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전문가로 연수단 구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
- 공고를 통한 수행여행사 선정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해외연수 추진

2. 준비과정

1) 1차 평가선정 회의

- 일 시 : 2015. 3. 13.(금) 10:30 ~ 12:00
- 주요내용 : 해외연수단 구성 및 수행여행사 선정 방법 논의



2) 수행여행사 선정 공고

- 1차 : 2015. 3. 17.(화) ~ 26.(목) / 2차 : 3. 27.(금) ~ 31.(화)

3) 입찰여행사 PT 및 2차 평가선정회의

- 일 시 : 2015. 4. 2.(목) 14:00 ~ 16:00
- 주요내용 : 입찰 여행사 PT 검토 및 선정

4) 1차 연수단 기획회의

- 일시장소 : 2015. 4. 2.(목) 15:00 ~ 17:00, 교육실
- 주요내용 : 연수단 인사 및 2015 해외연수 추진방향 설명
연수 프로그램 및 공식 방문기관 의견수렴
정책세미나 등 향후 일정 논의

5) 북유럽 정책세미나

- 일시장소 : 2015. 4. 28.(화) 14:00 ~ 16:00 , 중회의실
- 강 사 : 신필균 /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복지국가 스웨덴 저자)
- 주요내용 : 북유럽 사회정책의 전반적 내용 및 각 나라별 특징
민관협력과 네트워크, 복지의 통합적 체계 등

6) 오리엔테이션 및 방문기관 자체스터디

- 일시장소 : 2015. 5. 19.(화) 14:00 ~ 16:00,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해외연수 OT 및 세부 역할분담 확인
연수자 공식방문기관 발제 스터디

3. 실행과정

- 일 정 : 2015. 5. 21.(목) ~ 5. 31.(일), 8박 11일
- 연 수 국 : 북유럽 3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방문내용 : 사회복지 분야 민·관협력 우수 거버넌스 사례 습득



○ 역할분담

역할	담당	역할
연수단장	김형인	해외연수 총 책임, 대표
총 무	이인숙	부책임, 경비관리 및 실무지원
자 문	민한기, 조명자	해외연수 자문
전체사진 및 영상	진운태	활동 전체사진 촬영 등
보고서 총괄	김수정, 하경희	결론 및 제언 정리, 최종 점검 등
나라별 사회(복지)정책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김경순	덴마크 정책수집, 정리
	주관호	스웨덴 정책수집, 정리
	이옥재	핀란드 정책수집, 정리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가족복지과	황호성, 김선규	※ 기관별 자료취합, 정리 - 각 기관별 사업, 특징 - 수원시 정책반영 및 시사점 등
덴마크 LYNGHUSET 장애인센터	김순구, 하창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교수님	임복희	
스웨덴 노인너싱홈 Kampementets vård- och omsorgsboende	김태경, 김명진	
스웨덴 국립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이영설	
핀란드 청소년지원센터(Annaltalo)	김희순, 조기연	
소감문	연수단 전원	개별 소감문 작성

○ 방문기관 :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교수 간담회 등 6개소

연수국	방문기관
덴마크	▶ 코펜하겐 시청 사회복지부서 ▶ LYNGHUSET 장애인센터
스웨덴	▶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교수 간담회 ▶ 노인너싱홈 Kampementets vård-och omsorgsboende ▶ 스웨덴 국립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핀란드	▶ 청소년 지원센터 Annaltalo



○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5/21 (목)	인 천	EK 323	21:20 23:55	인천공항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ON BOARD	석: 기내식
제2일 5/22 (금)	두바이 코펜하겐	EK 151 전용차량	04:25 08:30 13:10 14:00 16:00	두바이 공항 도착 두바이 공항 출발 코펜하겐 공항 도착 후 방문지로 이동 ■ 공식일정 : 코펜하겐시청 사회복지부서(14시) - 코펜하겐시의 사회복지정책 및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Add: Rådhuset 1550 København ■ 공식일정 : LYNNGHUSET 장애인센터(16시) - 덴마크 코펜하겐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센터 방문 -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연구 - Add: provstevej 4 2400 Copenhagen, Denmark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COMWELL HOTEL ROSKILDE	조: 기내식 중: 기내식 석: 현지식
제3일 5/23 (토)	코펜하겐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 문화탐방 : 동화의 고향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시내 탐방 - 운하를 따라 이어지는 형형색색의 집들을 볼 수 있는 님하운 - 코펜하겐 시청사 - 재래시장을 근사하게 모던화시킨 마켓, 토르베홀렌 KBH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COMWELL HOTEL ROSKILDE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제4일 5/24 (일)	코펜하겐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코펜하겐 근교 프레드릭스보그로 이동(약 40분) ■ 문화탐방 : 북유럽의 베르사유라 불리는 프레드릭보그성&바로크정원 헬싱피르로 이동 ■ 문화탐방 : 햄릿 작품의 배경이 되는 크론보그성 - 육중한 멋이 있는 성 조망 및 바닷가 산책로 산책 코펜하겐으로 귀환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COMWELL HOTEL ROSKILDE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5일 5/25 (월)	코펜하겐	전용차량	전 일	<p>호텔 조식 후</p> <p>■ 문화탐방 : 동화의 고장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시내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킹의 유물이 가득한 덴마크 국립박물관 - 신년축하 축제가 열리는 개피온 분수대 - 안데르센의 동화 원작 인어공주 동상 <p>■ 히피공동체 크리스티아니아(CHRISTIANIA)</p> <p>호텔 투숙 및 휴식</p> <p>HOTEL: COMWELL HOTEL ROSKILDE</p>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제6일 5/26 (화)	코펜하겐 스톡홀름	전용차량 DY 3196	10:30 11:40 13:30 16:00	<p>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코펜하겐 공항 출발(약 1시간 10분 소요)</p> <p>■ 공식일정 :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교수님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Bruksvägen 6, Tumba <p>■ 문화탐방 : 스톡홀름 시내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홀름 신시가지 중심에 있는 세르엘광장 - 바로크와 로코코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스웨덴왕궁(외관) - 스톡홀름의 구시가지 감라스탄 등 <p>호텔 투숙 및 휴식</p> <p>HOTEL: Scandic Skogshojd</p>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제7일 5/27 (수)	스톡홀름	전용차량	전 일 10:00 14:00	<p>호텔 조식 후</p> <p>■ 공식일정 : Kampementets vård- och omsorgsboen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싱홈을 방문하여 기관브리핑 및 시설견학 - Add: Kampementsgatan 2B, 115 38 Stockholm <p>■ 문화탐방 : 스톡홀름 시내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홀름 시청 / 스톡홀름 대성당 - 침타이 독특한 리다르홀름교회 - 스웨덴 황실의 호화 전함 바사호가 전시되어 있는 바사박물관 <p>호텔 투숙 및 휴식</p> <p>HOTEL: Scandic Skogshojd</p>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8일 5/28 (목)	스톡홀름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09:00 ■ 문화탐방 : 스톡홀름 왕립공원(Kungsgarden) 산책 14:00 ■ 공식일정 : Arbetsförmedlingen 고용센터(14시) - 스웨덴 복지모델 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완전고용을 위한 기관 방문하여 정책 및 사업 브리핑 - Add: Tunnelgatan 3, 111 37, Stockholm 16:40 실자라인 탑승 터미널로 이동하여 수속 선내 석식 후 휴식 HOTEL: 실자라인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선 내 뷔페식
제9일 5/29 (금)	헬싱키	전용차량	09:50	선내 조식 후 하선, 헬싱키 도착 후 이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10:30	■ 공식일정 : 청소년 지원센터 Annaltalo(10시30분) - 시설 시찰 및 청소년 복지정책 브리핑 - Add: Annankatu 30, Helsinki	
			13:00	■ 문화탐방 : 헬싱키 시내 탐방 - 핀란드 국민음악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한 시벨리우스 공원 - 각종 국가의 종교행사가 열리는 원로원 광장 및 대성당 - 암석교회(템펠리 아우키온 교회) - 헬싱키 우스펜스키 사원 및 마켓광장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RANTASIPI AIRPORT HOTEL	
제10일 5/30 (토)	헬싱키 코펜하겐 두바이	전용차량 DY 3161 EK 152	06:30 07:10 14:55 23:15	공항으로 이동 헬싱키 공항 출발 코펜하겐 공항 도착 코펜하겐 공항 출발 두바이 공항 도착 ON BOARD	조: 호텔식 중: 공항식 석: 기내식
제11일 5/31 (일)	인 천	EK 322	03:40 16:55	두바이 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4. 평가과정

○ 해외 벤치마킹 평가회

- 일 정 : 2015. 6. 23.(화) 14:00 ~ 16:00
- 내 용 : 연수 준비 및 내용 총괄 평가, 연수보고서 검토 등

○ 보고회 및 포럼

- 일 시 : 2015. 7. 7(화) 15:00 ~ 17:00
- 장 소 : 협의체 교육실
- 참석인원 : 수원시민, 민·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 주제발표
 - [주제 1] 북유럽 복지기관의 특징
 - [주제 2] 북유럽 연수에 따른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 토 론 : 시의회,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5. 연수단

연번	구분	이 름	소 속
1	연수단장	김형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2	총 무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센터장
3	연수단	민한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
4	“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
5	“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	“	김선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7	“	김경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8	“	김명진	광교노인복지관 부장
9	“	김순구	해피해누리작업장 원장
10	“	김태경	수원실버인력뱅크 팀장
11	“	김희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12	“	이영설	작은행동한사랑 시설장
13	“	이옥재	동광원 사무국장
14	“	조기연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지부 국장
15	“	주관호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실장
16	“	진윤태	세류2동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17	“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교수
18	“	하장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19	“	황호성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장
20	“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



III. 연수국 개요

1. 덴마크 (Kingdom of Denmark)

1) 일반현황

표어	Danmarks styrke (신의 도움, 국민의 사랑, 덴마크의 힘)		
수도	코펜하겐 (약 124만명 거주) 북위 55° 40' 동경 12° 34' 06"		
국가	아름다운 나라		
주요언어	덴마크어		
국화	붉은 클로버		
국가원수	마르그레테 2세여왕 (72년 즉위)	정부수반	헬레 토르닝슈미트(국무총리)
건국	8세기 경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단원제
종교	덴마크 루터복음교 85%, 가톨릭 3%, 이슬람교 2%, 침례교 등		
종족	북게르만계의 데인족(96%) : 스칸디나비아인, 아누잇족, 페로스인, 독일인 등		
위치	북유럽의 유틀란드 반도, 북해와 발트해 사이. 반도 및 406개의 섬으로 구성		
인구	5,543천 명 (113위)	인구밀도	130 명/km ² (78위)
면적	43,094km ² (134위, 한반도의 약1/5)	내수면비율	1.6 %
교육	9년제 초등학교 의무교육	출입국	비자 면제 (90일 이내 체류 무비자)
GDP	3,472억\$ (33위)	1인당 GDP	61,885\$ (6위)
부패인식지수	90 (1위)	언론자유지수	7.43 (3위)
도메인	.dk	국제전화	+45
화폐	덴마크 크로네 (Dkr). 1Dkr=167.61원		
수교현황	1902. 7월 대한제국과 한정수호통상조약(韓丁修好通商條約) 1959. 3.31 공사급 외교부, 1972. 4월 상주대사관 설치		
주요정당	여당(좌파 연합정당) : 사회민주당(1871), 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 적녹연맹당 야당 : 자유당(1870), 보수당, 덴마크국민당, 자유연합당		
주요도시	올북(Aalborg), 오후스(Arhus), 오덴세(Odense)		
주요인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아동문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철학자). 카를 닐센(작곡가). 그룬트비히(신학자, 시인, 역사가, 정치가)		
특징	* 국토 / 영토 : 발트 해의 보른홀름 섬과 덴마크 본토(월란 반도와 셀란 섬, 핀 섬 등)을 포함. 덴마크 왕국(2,220,093 km ²)에 속한 식민지 :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제외, 포함하면 세계 13위).		



덴마크는 유럽북부 북해연안의 유틀란트반도 및 그 동쪽 해상의 부속도서로 구성된 입헌군주국이다. 정식 국가 명칭은 덴마크 왕국(The Kingdom of Denmark)이며, 덴마크어로는 단마크(Danmark), 한자어로 정말(丁抹)이라고 한다.

북부 유럽 북해 연안지역(북위 54° ~57° , 동경 8° ~15°)에 자리한 유틀란트(Jutland) 반도와 동쪽 해상의 407개 부속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선의 길이는 7314km에 달하며, 평평하고 긴 해안선으로 온후한 겨울에 바람이 많다. 두 개의 자치령인 그린란드(Greenland)와 페로(Feroe) 제도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란 어휘는 역사적인 인물 대니(Dani)이거나, 접두사 dan에서 유래하는데, 평편한 숲(flat woodland)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의 전쟁 때, 덴마크 유테스(Jutes)인들은 왕의 아들 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승리로 덴을 왕으로 모시고 이름을 덴마크(Dania)로 명명했다. 이 어휘는 또한 엘링(Jelling)과 룬스톤(Runestone)의 초기기록에 발견되었다.



종족은 북게르만계 노르만족의 한 분파인 데인족(Dane)이다. 종교는 바이킹 시대는 다신교적 신앙형태였으나 9세기경 기독교가 전래되었으며, 1936년 복음주의루터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국민의 88%가 믿고 있다.

낙농업이 유명하고 식료품·철강·화학·기계공업 등이 발달했으며, 수산업도 성하다. 1975년부터 북해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로서 위상이 높은데, 사회보장비용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의무교육 기간은 9년(7세~16세)이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의 내각책임제를 따르며,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179석)이다.

2) 사회정책 현황

《 덴마크 사회보장제도 개요 》

- 1) 성년에 달한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비·입원비는 무료, 약값 · 치과치료비 · 장의비도 대폭 보조
- 2) 67세 이상의 노인, 55세 이상의 미망인 및 폐질자에 대하여는 연금이 지급
- 3) 미성년 자녀 교육, 실업 등 생계비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금 지급
- 4) 산재보험·아동수당·모자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완비,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44%, 교육14%, 의료11% 등 약 70%가 사회보장 비용으로 충당
- 5) 90개의 종합병원(병상 2만 4615개) 및 16개의 정신병원(병상 3,457개)이 있고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보유

※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1933년 확립

(1) 복지제도 개혁 추진 동향

- 장기적인 복지국가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현행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 및 제도 개혁 방안 마련
- 개혁방안을 담은 복지위원회(Welfare Commission) 보고서 주요내용
 - 최고 소득세율 인하(63%→59%), 최고 소득세율 납부대상자의 소득 기준 상향 조정(30만 크로네(4만유로)→40만 크로네(5만3천유로))



- 조기퇴직 가능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2009년부터 매년 4개월씩 점차 연장하여 2028년에 완전 폐지
- 현재 65세인 퇴직 연령을 2013년부터 매년 1개월씩 연장
- 의료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혜자가 일부 부담
- 실업혜택 수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민자의 이민허용 평가기준을 완화, 영주권 부여시기 단축(7→2년)

○ 복지정책 개혁 추진 방향

- 복지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및 정치권 전반의 비판에 직면하였으나 복지제도 개혁의 대상과 폭에 관한 사회전반의 관심을 증폭하는 계기

(2) 주요 사회보장제도

○ 모기지제도(Mortgage) 발달

- 안전성이 높고, 대출자에게 낮은 금리수준의 대출 가능

○ 연금제도

구 분	1층		2층	3층
	국민연금	노동시장보충연금 (APT)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개인연금
특 정	세계최초의 3층 보호 연금 시스템 (국가, 기업, 개인)	노동조합과의 집단협약 형식 설립 -국민대다수 가입 -자영업자도 가입가능	집단계약 형식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계약	민간은행-보험 등에 개인 임의 가입
가입 대상	덴마크 국민 및 영주권자 ※ 외국인 수급가능 (조건 충족시)	전체 근로자의 93%이상 가입, 임의가입자	민간 가입자	민간 가입자
수급 연령	65세 이상 -3년 이상거주 -2024~27년 67세로 상향 예정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입조건에 따라 상이
수급액	월소득과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기본 월 5,245DKK+ 52,89DKK (독거기준, 부부의 경우 2,470DKK)	2009년 기준 연간 63,046DKK -불입액은 3240DKK/년 -근로자1/3+ 고용주2/3 불입	개인별로 상이	개인별로 상이



○ 조기 은퇴 제도

- 근로자가 평균 은퇴연령(65세)이전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노동 능력이 감소하여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근로자 연금지급

○ 자발적 조기 은퇴 제도

- 실업보험 연계하는 것이 조기은퇴제도와 차이점. 실업보험액의 91% 지급

(3) 노인복지 정책

○ 고령자 복지 3대 원칙

- 주거의 연속성 유지 : 재택생활 하는 것이 기본 원칙
- 자신의 의사결정권 존중 : 고령자 자신이 생활계획 결정, 행정 및 전문 기관은 고령자가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역할
- 잔존능력의 활용 : 고령자의 질병이나 장애에만 관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간병보호를 제공하지 말고 고령자의 잔존능력을 발굴

(4) 보육정책

○ 보육시설 2/3 지방정부 소유·운영

공공 및 사설 보육시설은 보육내용 및 운영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공공, 사설에 관계없이 공동관리계획(pool scheme)의 보조금 지급 가능
사설보육 시설 이용시 부모들에게 보육료 지원

○ 지방정부 보육시설

- 탁아소(Creche)
생후 6개월부터 2~3세사이의 영유아 이용, 보육교사 당 평균 3명 아이 돌봄
- 유치원(Kindergarten)
유치원은 3~6세의 아이들 이용, 보육교사 당 평균 6명 아이 돌봄
- 연령 통합 보육시설 (Age-integrated facilities)
생후 6개월부터~ 6세의 아이들 이용
취학연령이 될 때까지 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 가정에서의 보육

▶ 보모(Childminder)배치

자격을 갖춘 보모의 집에서 생후 6개월부터 2~3세의 소수그룹 돌봄

지방정부는 보모 자격 규정, 고용 및 감독 실시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유일한 보육서비스

▶ Private childcare(개인양육)

가족 중의 한 사람이나 유모처럼 개인이 아이를 돌봄

보조금이 지급되며 규칙과 보조금지원은 지방정부마다 다름

지방정부는 특정연령의 아동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

○ 특수 시설 운영

두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용화를 위한 특별한 목적의 보육시설 운영

– 특수시설(Special facilities)의 등록

교육의 방향을 보육시설 자체위원회에서 결정

특수 시설 필요시 지방정부에 요청, 집과 가까운 보육시설 배정 노력

– 대기자 명단(waiting list)

당장 보육시설이 아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대기자 명단 등록

대기자 순, 연령이 높은 순으로 대기자 명단 등록

단, 지방정부가 특수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대기 없이 바로 배정

– 보육 보장 (Guarantee)

생후 30주가 될 때까지는 아이의 연령 그룹에 맞는 적합한 보육 시설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보육 보장

– 운영시간 (Opening hours)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지방정부마다 다름

일반적으로 오전 6시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저녁과 야간에 보육을 제공



- 보육료(payment)

시립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연령, 보육시설의 종류,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부모는 보육료의 30%(최대)지불, 나머지는 보육시설 보조금 교부금 충당. 저소득층 가족은 보육료를 경감 받거나 무료로 이용

- 보육교사(Staff)

보육시설에서는 훈련받은 교육전문가와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봄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양성소(training college)에서 보육관련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아동의 개발과 필요에 대한 식견과 관련 지식 갖추 보조교사들은 교원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기본교육 훈련(1년6개월)을 받음

일반적으로 시(市)의 보모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는 보모들을 선발할 때 아이들 양육과 관련한 유경험자를 구하며 보모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모들은 1년6개월간의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받음 부모회 운영을 통해 교육원칙과 새로운 보육교사 채용, 재정사항에 관여

(5) 장애인 복지정책

○ 장애인의 정보화 환경을 위한 정책

장애인 문제를 자유시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처리 할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하여(Freedom to Choose, 1996)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정보통신 제품을 장애인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설계하고,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개발을 추진, 이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

(6) 덴마크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 사회복지 제도는 관대하다

- 이는 보편적이고 세금에 의존하는 복지혜택과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모든 거주민들은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경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 복지혜택은 탈 가족화로 가족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는 누진적이며, 사회적 이전소득은 관대하고 공공서비스는 대규모 이나 분산되어 있다.

○ 사회제도는 분권적이다

- 중앙정부는 사회정책을 제정하지만, 사회복지의 대부분을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복지혜택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의 사회적인 계획을 상담해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고 행정지원정도를 책정한다.
- 파트너십 문화에 기초한다. 이 문화는 사회적 파트너, 지방단체, 여타 사용자 집단 등의 관련 집단의 관여로 특징지어진다.

○ 빈곤과 사회적 배제

- 이민자와 장기적실업자가 저소득계층의 많은 부분 차지

○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활성화 조치

-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낮게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불려오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경각심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의 정책 전환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 직업훈련강화와 교육을 통한 노동공급의 증가, 그리고 실업자에 관한 복지 정책의 제한과 감독에 목적이 있다.
- 임시직의 퇴축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증과 교육을 더 강조하는 정책으로 구성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통합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 사회적 통합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은 취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역점을 둠.
- 활성화조치는 노동공급을 늘이는 것뿐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고립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노동에 대한 동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합당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
- 1994년 이후 덴마크 청년들은 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할 수는 없다. 이후에는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여야한다. 이 정책으로 청년들의 빈곤지속도가 매우 짧아졌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실업기간 중 높은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관대한 실업수당과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재량이 있어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매우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힘입은 풍부한 복지혜택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 탁아소 운영은 경제활동과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여성이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수단, 이는 여성의 취업가능성을 늘리고 경제활동으로 여성 노동시장을 만들어 냈다.
- 활성화조치는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공공사회복지서비스직 고용을 장려하며, 사회적 자본에 사회적 투자를 통해 복지예산 지출을 보충하는 방법을 시사한다.

(7) 덴마크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

- 주재국 사회의 노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평균수명의 연장에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복지시스템을 부양할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이 가중됨.
- 복지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급증 문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축소와 복지혜택 확대가 병립불가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부 내부 및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현행 고비용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및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음. 주요 개혁대상으로 퇴직연령, 조기퇴직제, 세율인하, 연금제도 개편, 이민정책 수정 등이 집중 논의됨.

(8) 덴마크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은 기대효과

- 모든 복지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며, 국민의 삶을 안정화 시킨다는 점
- 노동과 복지를 결합하여 노동인력을 확대하고 높은 세금으로 복지비용을 충족시킨다는 점
- 높은 세금에도 정부와 국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점 등이 있다.



2. 스웨덴

1) 일반현황

표 어	För Sverige i tiden (스웨덴을 위해, 시대와 함께)		
수 도	스톡홀름 북위 59° 21', 동경 18° 04'		
국 가	그대의 조상, 그대의 자유		
주요언어	스웨덴어, 영어(높은 수준)		
국 화	은방울꽃		
국가원수	칼 16세 구스타프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정부수반	스테판 뢰벤 총리
건 국	칼마르 동맹으로부터 (1523. 6. 6)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단원제), 공화국
종 교	루터복음교(CHURCH OF SWEDEN) 88%		
종 족	북구게르만족(스웨덴인)90%, 사미족(LAPP족), 이민족 등		
위 치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남부.		
인 구	9,723,809명 (90위)	인구밀도	20명/km ² (156위)
면 적	450,295km ² (56위) 한반도2배	내수면비율	8.67%
교 육	9년제 의무교육	출입국	비자 면제 (90일 이내 체류 무비자)
G D P	전체 \$ 5,591억 (22위)	1인당 GDP	\$ 57,557 (7위)
부패인식지수	88점 세계 4위	언론자유지수	9.23 세계 10위
도메인	.se	국제전화	+46
화 폐	크로나(SEK), 부속단위(어레 ore), 100어레 = 1크로나. 1SEK=132.13원		
수교현황	1959. 3. 11. 한국과 수교		
주요정당	예테보리(Goteborg), 말땡(Malmoe)		
주요도시	사민당, 보수당, 좌파당, 기민당, 자유당, 중앙당		
주요 인물	프론트 디자이너(스웨덴 디자이너 그룹), 알프레드 노벨(발명가 노벨상 창설자), 다그 함마르셸드(정치인 2nd유엔사무총장), 셀마 라겔뢰프(문학인 노벨문학상 수상자)		
특 징	1. 왕실 표어가 있고, 현재의 표어는 칼16세 구스타프 국왕의 표어이다. 2. 왕실 國歌는 왕의 노래(Kungssången)이다. 왕실 國歌의 제목은 노르웨이의 왕실 國歌와 비슷하다.		



정식 국가 명칭은 스웨덴(The Kingdom of Sweden)이다. 스웨덴어로는 코농 아리케트 스베리에(Konungariket Sverige)라고 쓴다.

스웨덴은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Scandinavia Peninsula)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위치해 있다(북위 55.5° ~69°).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는 약 19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스톡홀름은 멜라렌(Mälaren) 호수와 발트(Baltic) 해에 인접해 있다. 스톡홀름의 ‘stock’은 목재, ‘holm’은 섬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목재의 집결지로서 경제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형태는 입헌군주국,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총리, 12개 부처, 21 장관), 의회는 단원제(349석)이며 행정구역은 21개 주(län)와 289개의 코문(kommun)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현재 국왕은 1973년 보위에 오른 칼 구스타프 16세(Carl Gustaf XVI)로, 명목상 국가원수이다. 최고지도자는 스테판 뢰벤 총리이다. 국경일은 6월 6일(Swedish Flag Day : 구스타프 바사(Gustav Vasa) 국왕 즉위일 1523. 6. 6)이다.

고대 게르만 족의 부족인 스베아족과 고트족이 융합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인을 형성하였다.

2004년 스웨덴의 전체 인구가 처음으로 9백만 명을 돌파했다. 스웨덴의 인구는 북부 원주민인 17,000명의 사미인들을 포함한다. 핀란드와의 국경에 주로 사는 5만 명의 핀란드계 스웨덴인들도 원주민 소수 민족이나 20세기 이후에 스웨덴에 이민 온 핀란드인 1, 2세대가 45만 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스웨덴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민을 내보내는 나라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바뀌었다. 인구의 13.3%가 외국 태생이고 약 5분의 1이 이민자거나 자녀들이다. 이민자들의 출신지는 핀란드, 구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터키, 이란, 칠레, 그리고 기타 북유럽 국가 순이다. 스웨덴은 내전에 놓여 있던 나라들로부터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국가의 자부심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관대하다. 이들은 정계에도 올랐는데, 1986년에 암살된 전 총리 올로프 팔메는 네덜란드인의 후손이다.

스웨덴어는 같은 북게르만어군인 노르웨이어나 덴마크어와 비슷하고, 서로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노르웨이어와 유사하다. 반면, 글은 노르웨이어(보크몰)는 덴마크어와 비슷하고, 스웨덴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남부의 일부 지역은 덴마크어에 가까우며, 남북에 걸쳐 기다란 국토로 말미암아 지역에 따른 사투리의 차이가 꽤 있다. 북부의 사미인들이 쓰는 말은 1960년대까지도 억눌렸다. 역사적 이유로 이웃 핀란드의 주민 약 7%가 스웨덴어를 쓰며, 스웨덴어가 핀란드어와 더불어 공용어로 정해져 있다.

1999년부터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5개의 소수 언어를 인정하고 있다. 사미어, 메엔키엘리어(토르네달렌 핀란드어), 표준 핀란드어, 로마니어, 이디시어이다. 추가로 아랍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스웨덴 국방군(Försvarsmakten)은 스웨덴의 군대이다. 2010년 7월부터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다. 스웨덴은 수백년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인 나라였으며 무장 중립 노선을 유지해 유럽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특수기에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왔으며 이때에 쌓인 경제력이 스웨덴의 복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는 외부의 적에 대한 침략보다 국민을 더 신경 쓸 수가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실업수당 제공 등 수준 높은 사회 보장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물가인상률 1.6%, 실업률 6.2%, 대외무역 수출액 약 1,452억 달러, 수입액 1,592억 달러 수준이다.

스웨덴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66세(남성 78.59세, 여성 83.26세), 인구증가율 0.158%, 1,000명당 출생률 10.13명, 1,000명당 이민률 1.66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가입한 날짜는 1946년 11월 19일이다.

2) 사회정책 현황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980년대 말에 황금기에 이른다. 이토록 반세기 만에 복지국가로 거듭 나게 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사민당)의 국정철학과 두 지도자의 개혁정치가 있으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 자원봉사단체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다.

1928년 페르 알빈 한손에 의한 ‘국민의 집’ 구상은 국민을 가족으로 바라보고 계급사회 타파,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의 확고한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스웨덴 사민당의 핵심 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로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요한 정치적 결정은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3개의 메커니즘은 선거에 의한 제도적 참여와 합의, 복지를 통한 기회의 평등과 참여,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인권존중을 들 수 있다.



한손 수상에 이어 타게 에르란데르 수상이 2차 대전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기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소개한 강한 사회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사회투자를 촉구한다”는 주장과 함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수요에 따른 공공 분야의 확대,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역할 분담, 예산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행정개혁과 공공기관의 윤리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지도자의 개혁 정치는 스웨덴을 ‘빈곤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시킨 정치철학이며 국가 운영방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집 구축과정과 스웨덴 복지정책의 변화

년대	주요정책	특징
1910 -2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1913) · 8시간 근무제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민당의 사회정책의 개발. 한손의 국민의 집 도입 · 정의, 시민정신, 배려정신, 연대의식 강조
19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보험지원정책 (1934) · 임산부보호정책(1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손의 선거전략과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선택, 실업자, 임산부, 노동자의 후생복지에 초점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지급(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대전 전후의 사민당 주택, 보건, 가족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복지정책의 전략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국민연금제(1959, 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르란데르 수상의 강한 사회
1960 -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년 의무교육제(1966) · 아동가정 주택보조비(1968) · 100만호 주택건설 (1965-75) · 출산유급 휴가제 (1972) · 국민치과 보험제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메의 등장,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국민의 집 건설 · 여성, 소수자 권리증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 완성 · 고세금-고혜택을 바탕으로 한 스웨덴 모델을 바탕
1980 -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경쟁제 도입 · 국제연대를 위한 국민의 집 대외원조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적자의 문제와 복지병/모럴헤저드 문제등장 · 녹색국민의 집 (페손) · 대내적으로는 일시적 국가역할의 후퇴 ·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책임연대를 통한 제3세계의 국민의 집 건설 원조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정책 · 포말정당화의 복지경쟁 · 의료보건 민영화 · 약국민영화 · 제3의 길에 따른 복지제도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역할의 축소 및 구조조정 ·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 · 고착화된 소외계급의 사회적 책임과 생산참여강조 · 무지개 집의 개념도입 (다문화시대의 사회적 사회계급의 등장과 소외)



(1)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단순히 사회 정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치경제모델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 경제, 주택, 지방분권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노조와 사민당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모델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복지제도의 변화와 특징

	내용	특징
고세율-고복지 보편적 복지	고세율을 통한 고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직접세(개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고용주세 및 각종 특수세)를 포함한 세금부담금이 국민총생산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퍼센트 수준을 상회했으나 최근 들어 40퍼센트 후반으로 하락됨. 기업의 고용주사회보장세(Employers' Tax)의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기업부담. 참고) OECD 평균 34.8%, 한국 24.6%. 2010년 기준
대타협과 협업체제	협업적 정책공조체제를 통한 복지정책	샬트셰바덴정신 ²⁾ , 좌우연정, 목요클럽,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평등을 통한 복지정책	평등을 통한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	복지제도는 평등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면역력이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제도	완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논리로 복지재정세원이자 국가복지 부담을 낮추는 수단. 높은 실업 시 국가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
지방분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방조직의 정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1960년대 1500개의 군을 정비해서 290개로 축소함 공공서비스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체로 이전. 재원은 세금과 국가보조금, 로빈훅세금 ³⁾ 으로 충당됨.

출처 : 스웨덴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최연혁)

- 주: 1. 사민당의 장기집권은 노조의 지원과 보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해밀턴 (C B Hamilton)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구축 역시 스웨덴의 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논리로 전개된다. 노조의 경우 처음에는 선택적 복지를 지지했다. 노조의 사민당 지원과 경제적 보조에 관해서는 Hamilton 2000, Johnson 1998 등을 참조.
2. 1938년 노조(LO)와 사용자단체(SAF)가 맺은 산업평화선언을 위한 조약. Hansson 1996 참조.
3. 로빈훅 세금은 2004년 법제정을 통해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복지보조금의 성격으로 정식명칭은 균형분배기금(Compensation Expenses)이라 불림.



(2) 복지행정 체계

기본적인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중앙 - 광역자치단체(Lan; County) - 기초자치단체(Kommun; Municipality)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21개의 광역자치단체(랜)와 290개의 기초자치단체(꼬뮌)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은 정책을 결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매개적 역할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탁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주택,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한다.

(3) 스웨덴의 사회정책

스웨덴은 1913년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과 양로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금 보조와 사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열개는 ‘국민의 집’ 이념이 제창된 이후 제시되었다.

현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의 균형을 이루는 보호와 돌봄, 건강과 의료에 관한 예방·진료·치유, 유아부터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평생교육과 주택 보장 및 노동 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 평등과 통합을 위한 시민권 보호와 보장 및 사회적 이탈자를 위한 보호와 재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개인(가정)과 사회(노동)의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사회 정책으로 포괄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생애 주기별(life cycle)이란 말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

○ 아동 및 가족정책

출산 후 18세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회적 보호가 목적이다. 1960년대 전후 경제발전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고,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확대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출산휴가는 480일이며,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되 어느 한쪽도 60일 미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약 77%를 급여로 보장받는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은 간병급여가 지불되는 60일간의 임시부모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아동수당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한 아이 당 1040크로나 (약 18만원)이나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수당이 있어 4이면 $1000 \times 4 + 1345$ 크로나 (약 95만원)가 지불된다. 16세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학업보조비로 아동수당과 같은 금액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 후 박사과정 전 과정이 무료이다. 이러한 아동 및 가족정책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코뮌)가 수행한다.

○ 노인정책과 연금제도

현재 스웨덴의 노인인구 비율은 18%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다. 1913년에 도입된 노령연금제도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초의 보편적 복지제도로 인정받는다. 노인정책의 세 가지 핵심내용인 소득 보장, 돌봄, 그리고 주거 제공 및 보조는 보편주의 복지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세계화와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1998년의 연금개혁 입법을 다시 불러왔고, 2000년부터 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프리미엄연금의 새로운 3층 연금구조를 이루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의료서비스는 기초지방정부(코뮌)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노인복지의 탈 시설화와 재가노인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인본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간(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늘어났다.

○ 보건의료정책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의 3단계로 나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게 조직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책임단위는 광역지방정부이다. 독자적인 조세징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업무의 90%가 보건의료에 관한 것인데, 각 광역정부는 의료제도의 운영에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 미리 정해진 기본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진료비용의 연간 상한선은 병원비(약 15만원)와 약값(32만원)으로 정해져있어 모두 47만원 내외 이상 들지 않는다. 다만 입원 시 식대비로 하루 약 1400원을 지불하나 병으로 쉬거나 치료를 받는 동안은 상병급여를 임금의 80%를 받는다. 노조가입자는 10%를 더하여 대부분이 급여의 90%를 받는다.

○ 주택 정책

주택정책은 삶의 기본요소인 주거를 다루는 사회정책인 동시에 건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선택하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한다. 이때 자신의 주거지를 마련한다. 학생원룸은 주택 마련의 첫 단계다. 가족이 생기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은 코핀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빌리거나 조합이 설립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개인주택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다.

스웨덴에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권 보호이다. 전국에 3천개의 ‘세입자조합’이 주거권을 대변한다. 그리고 세입자전국연합을 결성해 임대료나 주택정책을 논한다. 임대료 결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조합 간에 지역단위의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의 주요 사항은 노령층이나 자녀를 둔 가정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택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이다.

주택의 유형은 소유권 보장 단독주택 45%, 조합이 제공하는 소유권 인정 임대주택 15%, 그리고 임대주택이 40%(이중 22%는 기초지방정부가 제공하고, 18%는 민간 기업이 제공)을 차지한다. 결국, 스웨덴 국민의 40%는 지방정부 관할 하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정부는 1978년 임대료 협상법을 제정해 임대료와 주거권 보호를 하고 있다.



○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84% 수준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5%로 유럽연합의 평균에 비해서 15%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미 1950년대 노사 중앙 협상을 통해 “동일한 직종 내에서 기업별 차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연대 임금제도를 소개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우선이며,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정책에서 최후의 수단이다. 실업급여는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받으며, 실업급여의 기간은 14개월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보여주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스웨덴과 비교해볼 때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보편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빈틈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3) 스웨덴 사회정책의 특성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다양성〉

-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혜택(평등사회)
-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일차적 재분배 (연대임금과 양성평등)
- 보편주의에 의한 생활의 기본 안정과 평등 문화(갈등 예방과 계층이동의 발판)
- 소득비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유인과 동기부여)
- (최빈곤층을 위한) 표적 집단 모델 등을 활용한 공적 부조의 다양성
- 2인부양자 모델에 의한 여성보호
- 사회서비스의 분권화

탈 가족화된 가족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절대로 분리 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정책의 중심에 아동을 둔 점이며, ‘보육’을 부모의 편의제공 외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모든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건강한 환경, 최소한도



물질적 가정환경을 돕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가져 오나 일차적 목적이 아동의 보호라는 점이 중요하다.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 하였을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양육권자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족정책,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철저한 양성평등 원칙, 이에 따른 2인부양자 모델의 존중, 아동중심의 원칙이며 이는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스웨덴의 조세정책


사회복지와 관련된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 부담의 간접세(사회보험 기여금 31.42%) 그리고 소비자 누구나 부담하는 부가가치세(6%, 12%, 25%). 소득세는 누진적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다시 나뉜다. 국세는 연소득 380,200크로나까지는 0%, 그 이상의 고 소득층에게는 20%, 25%(538,800 크로나 이상) 까지 부과된다. 소득 수준이 연간 18,000 크로나 이하는 모든 세금 면제를 받는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 평균적으로 광역시는 약 7%, 자치단체는 24%로 일반 대중은 약 31%의 지방세를 내는 셈이다.

※ 한국과 차이점 : 국민의 소득세 대부분이 지방세로 이루어짐. 특히 중하층은 소득세를 오직 지방세로만 납부. 이처럼 세액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쓰이며, 시민이 세금의 집행에 관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움.



3. 핀란드

1) 일반현황

수 도	헬싱키(Helsinki)		
국 가	우리나라(Our Land)		
국 화	은방울꽃(Lily of the valley)		
건국일	1917. 12. 6일 (러시아에서 독립)		
국가원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2012.3 재임, 임기 6년) 총리: 알렉산드르 스투브 (2011.6월 국내정치 담당)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의원집정부제, 공화제, 단원제		
상 징	푸른색과 하얀색의 전통의상을 입은 순결한 핀란드의 소녀(The Maiden of Finland)상, 백조, 곰, 자작나무, 농어, 화강암, 호수, 붉은 화강암, 등		
언 어	핀란드어91.2%, 스웨덴어 5.5%, 랍어(Lappish) 또는 러시아어 3.3%		
종 교	핀란드 루터교(82.5%), 그리스정교(1.1%), 기타(무신론자 포함) 16.4%		
종 족	핀란드인(93.4%), 스웨덴인(5.6%), 러시아인(0.5%), 기타(0.5)		
위 치	북유럽 발트해 연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오른쪽에 위치. 발트해를 끼고 동으로 러시아, 서로는 스웨덴, 북으로는 노르웨이와 접경		
주요도시	Helsinki(60만명), Espoo(25만명), Tampere(21만명), Vantaa(20만명) Turku(18만명), Oulu(15만명), Lahti(10만명), Kuopio(10만명)		
인 구	5,262,930(2012년)	인구밀도	18 명/km ² (2012년)
면 적	338,145km ² (세계65위, 한반도1.5배)	내수면비율	34,330 km ²
교 육	초등~ 대학교 무상교육 실시	출입국	
G D P	2,763억 \$ (세계41위,2014년)	1인당 GDP	50,451 (2014년)
도메인	.fi	국제전화	+358
화 폐	유로(EURO) 1달러=0.76유로, 1유로=1,248.31원		
수교현황	1973년 8월 24일		
주요정당	여당 : 국민연합당(50), 사회민주당(45), 좌익연합(17), 녹색연맹(15), 스웨덴인당(9)등 야당 : 진정한 핀란드인당(39), 중도당(35), 기타(무소속)		
대표인물	시벨리우스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1155년 스웨덴 십자군에 정복되어 스웨덴 일부로 병합되었고, 1809년 러시아의 자치령인 대공국이 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독립을 선언하였고 1918년에 공화제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독립된 통일국가를 이룩하였다.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스웨덴, 북쪽으로는 노르웨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발트 해(Baltic Sea)를 사이에 두고 에스토니아와 마주보고 있다.

핀란드의 정식 명칭은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이며, 핀란드어로는 수오멘 타사발타(Suomen Tasavalta), 줄여서 수오미(Suomi)라고 한다.

핀란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의원집정부제이다. 핀란드 의회는 단원제이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 200석이다.

가입한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북유럽협의회 등이 있다. 군사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NATO의 평화동반자계획(PFP)에는 참여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521만 명이고, 인구밀도는 17명/km²이다.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62%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남자가 72.8세이고 여자는 80.2세이다.

한국과는 1973년 8월 24일에 수교를 하였고, 북한과는 1973년 6월 1일에 하였다.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은 1973년 8월에 개설하였다. 북한은 1973년 6월에 주핀란드 북한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1999년 4월에 공관을 철수, 현재는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에서 핀란드대사관을 겸임하고 있다.

2006년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를 방문하였고, 1994년 10월에 에스코 아호(Esko Aho) 총리, 2000년 10월과 2002년 4월에 타르야 카리나 할로넨(Tarja Kaarina Halonen)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과 핀란드의 교역 규모는 한국 기준으로 수출이 7억 7,000만 달러이고, 수입이 9억 4,000만 달러이다.

2) 사회정책 현황

(1) 핀란드 복지제도 개요 및 특징

시 기	특 징
~1950년	주로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초점
1950년대	스웨덴복지모델을 도입하면서 점차 보편적이고 공공분야(중앙 및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로 발전
1956년	빈민층, 저소득층 노동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지원을 명시한 법이 제정
1960년대	연금제도도입으로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이 갖추기 시작
1964년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전 국민 대상 의료비용 및 병가에 따른 소득 손실 보전 제도가 시행
1970년대	주간 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수 계층에 대한 복지 제도가 집중적으로 발전
1980년대	경제가 지속 고성장하면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 실업수당, 장애인 및 빈곤층 대상 직접 보조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 강화
1990년초	경제 위기로 대량실업과 세수 부족을 겪으면서도 건강관련 보조금 축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 복지 제도의 기본적 구조를 유지하였고 사회지출 비중을 오히려 확대
1990년대 초 5년간 GDP 대비 사회지출이 25% → 35% 로 증가	



(2) 핀란드의 사회복지현황 및 특징

(가) 복지제도 현황

1) 핀란드의 GDP 대비 사회지출

- 사회보장비용, GDP 대비비중은 복지제도 정착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를 앞질러 꾸준히 증가

① 개인당 복지지출액 : 1970년대 1,500유로 → 1980년대 3,200유로 → 1990년 5,800유로 → 2000년 6,800유로 → 2010년에는 10,000유로로 지속적으로 증가

② GDP 대비비중 : 1965년 5% → 1980년대 16% → 1990년대 28% → 1993년(경제위기) 35% → 2010년 이후 30%수준을 유지

2) 사회보장 자원별 비중

- 국가(28.4%), 지자체(17.7%), 고용주(35.8%), 수혜자(12.1%) 및 기타 수입(6%)에서 각각 충당 (고용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연금이 핀란드 사회지출의 40%를 구성하고 있고 고용자가 피고용인의 연금 및 여타 사회보장비용을 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
- 사회보장 및 보건서비스 제공 비용은 지자체 70%, 중앙정부 20%, 수혜자 10%를 각각 부담하며 자녀수당과 육아수당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함.

3) 복지 담당기관(KELA)

-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감사를 받는 독립된 사회복지기관이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본부를 두고 있음
- 주요 업무는 가족복지(출산, 아동수당 등), 실업, 연금(기초), 의료(치료비 보전·재활 등) 장애인복지, 대학생 복지 등임.

(나) 주요특징

- 1) 높은 조세 부담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노르딕 복지의 전형적 모델
스웨덴으로부터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면서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44.5%, 세계3위)을 바탕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학까지 전면 무상 교육실시, 아동·보육수당 제공 등 보편적·포괄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

2)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공공부문 및 지자체의 높은 역할 비중

핀란드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회보험(의료보험·장애연금·노령연금·실업급여 등)과 고등교육만 담당하고,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의료서비스 등 500개 이상 법정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공을 위한 일정 정도 자율적인 조세권을 갖고 지역주민에 지방세 16.5~21.5%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과도한 복지 지출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적자 발생 시 다음 년도에는 반드시 흑자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으로 규제함.

3) 여성·노령 노동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모델 구축

전후 복지확대 과정에서 양육 보조금지급, 아동 보육시설 및 주간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복지 제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여성의 취업률은 77% (우리나라 56%) 차지하며, 63~68세 노동자가 직업을 지속해서 가질 경우, 소득비례 연금의 연금 가산 기여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3) 주요 분야별 복지 제도 현황

(가) 출산 및 보육 지원

핀란드는 합계 출산율은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육아지원 정책으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1.9명)을 유지하고 있음.

- 산모 출산 지원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는 11~15회의 산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출산 지원금으로 현금 140유로 또는 아기 용품 출산 패키지(임신 154일 이후)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이 출산 휴가를 받게 될 경우 3개월간(산전 8주, 산후 2주 의무실시)은 고용주가 월급전액(일부 건강보험에서 보전)을



-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연간소득의 75%(최대 32,892유로)정도를 지급받게 됨)
- 아동수당 (1948년 최초 도입, 현재 복지예산의 4% 차지)
성년이전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수당을 제공하며, 1인당 100유로를 기준으로 자녀 2명시 1명당 110유로 다자녀에 해당하는 3명부터 141유로로 크게 높아져 5명이상 최대 182유로를 제공함.
(2015년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에 있어 사실상 수당지급규모를 축소할 예정)
- 보육지원(양육수당)
자녀들이 지자체 운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정부가 매월 140 유로의 비용을 지원 (해당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아동의 92.4%가 지자체 운영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우리는 90%이상이 민간 보육시설 이용
3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27 유로의 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1명 추가시 마다 98유로씩 지급(가정의 수입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

(나) 교육제도

- 핀란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드물게 대학(대학원 포함)까지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대학제외)을 실시하고 있음. 1970년대 9년 의무교육과 전면 무상 교육을 법제화하면서 현대 핀란드 교육 제도의 기초가 형성됨 (무상 급식은 1940~1950년대)
핀란드 대학 및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도 전액 무료이나 최근 외국인에 대한 학비 부과 필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 대학생들은 내 외국인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

(다) 기초사회보장(공적부조, 실업수당)

-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식비, 의복비, 교통비, 문화 생활비를 감안한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1유로까지 생계 보조비를 지원(배우자는



85%)하며 전체인구의 약 11%가 혜택을 받고 있음.

(라) 의료보험

- 핀란드는 1963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되었고 고용주 및 피고용자, 중앙·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대략 치료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경우 평균 소득의 70% 정도를 수당으로 보전 받고 있음.

(마) 연금 및 노인복지

- 핀란드 연금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국민연금과 18세 이상 근로자가 의무가입하게 되는 사적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며, 사회보장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분야임.

(바)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

- 핀란드는 1906년 세계 3번째로 여성 투표권 및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로 지금도 내각·의회 등 주요 보직의 40%이상 여성 비율을 유지
- 남녀 고용차 1%대, 취학자녀를 둔 여성 고용율 77.2%이고 3세 이하를 둔 부모는 26주간의 육아휴직(다자녀 1명당 10주 추가)을 가질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통상 소득의 70~75% 수준을 건강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음.

(4) 제언: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복지에 우선순위

- 국가 경제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1970년도 보육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시켰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무상 교육제도를 시행하였음.
- 1990년대 경제 위기 시에도 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은 축소하면서도 교육과 공공보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복지는 유지 또는 확대



하였음.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를 시혜 출범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선택이 필요함.

(나) 복지는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연계 추진

- 핀란드가 보편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는 높은 조세부담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며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무조건적인 복지확대가 아닌 재정건전성 유지 원칙 (전년도 재정 적자 시 차기연도는 반드시 흑자 재정 편성을 법으로 규정)에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 등, 자신의 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 신고 및 납세가 당연히 되는 신뢰사회가 구축되어야겠으며, 부의 재분배(조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도 시행

- 다양한 출산 및 보육지원, 무상교육 등의 복지제도를 통해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1.9%)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지속 유도하고 있음.

⇒ 공공 보육서비스 강화 및 출산 후 직장 복귀 및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 또한, 퇴직연령을 높이고 고령자 취업 시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 뿐만 아니라 노동가능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고령자 직업훈련이 필요함.

(라) 양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도 강화

- 핀란드가 높은 여성 경제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데는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보육과 사회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 평등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남녀 고용 차이를 없애고, 남녀 간 소득차이를 최소한으로 하며, 여성의



출산이나 가사 등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함.
또한 직장을 가진 부부(꼭 여성만이 아닌)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남성의 자녀 양육에 양성 참여를 이루도록
함.

(마) 공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의 점진적 확대

- 핀란드는 100% 가까운 공교육 부담률에도 사교육 없이 공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개개인의 수준이나 개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천편 일률적인 학습을 강요하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 때문에 국민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편임. 핀란드처럼 경쟁보다는 낙오자 없이 함께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며, 잘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만이 아닌, 못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도 필요함. 또한,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함. 교과서 위주의 학습이 아닌, 인성과 감성 등을 익히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바)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 불균형 해소

-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 적용, 20km이상 속도 위반자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징벌적 교통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제도가 사회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및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소득에 따른 세금 및 벌금의 차이를 분명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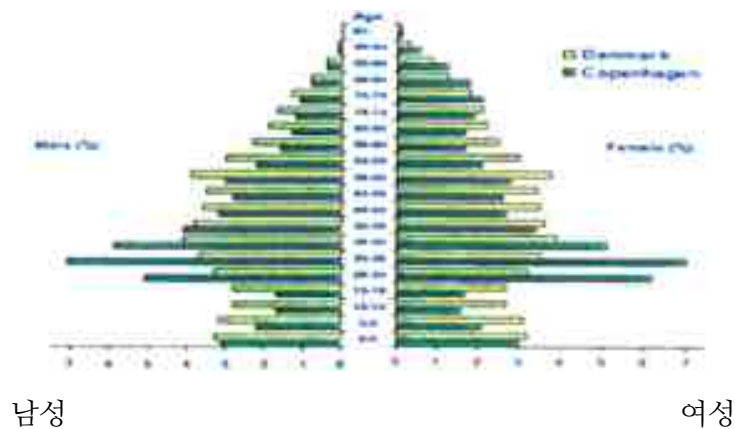
IV. 연수 방문기관 보고

1. 코펜하겐시 사회복지부서



1] 기관소개

1) 덴마크와 코펜하겐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민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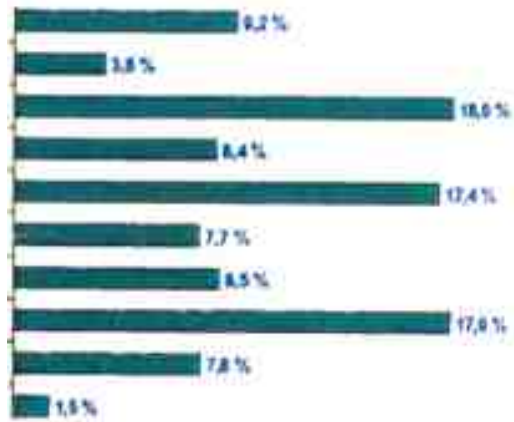
2) 직업군, 실업자 및 학생





3) 직 업

제조
건축 및 건설
무역, 호텔, 음식
수송
금융서비스
공공행정
교수
사회 및 건강노동자
문화, 스포츠, 협회
기타



4) 사회적 연대를 위한 덴마크 모델

- ☐ 보편주의
- ☐ 공적자원
- ☐ 재분배
- ☐ 서비스 확대
- ☐ 분산
- ☐ 프레임 워크 법을 통한 제어
- ☐ 지방자치단체

5) 국가와의 협력

- ☐ 대화
- ☐ 연구
- ☐ 정보교환
- ☐ 추천
- ☐ 가이드라인
- ☐ 실험
- ☐ 새로운 개발



6) 재 정

○ 재정

- 코펜하겐에 의해 지급
- 중앙상환
- 세금을 통한 융자

7) 재 분 배

- 노령연금 100%
- Skanejob(쉬운 일) : 50%
- 초기퇴직연금 : 100%-50%-35%
- 실업수당 : 35%
- Fleksjob(유연한 직업) : 65%
- 재활 : 50%-65%
- 질병수당 : 100%-50%-35%
- 현금급여 : 50%

8) 재 활

- 질병수당
- 기 타
 - 신체장애
 - 정신장애
 - 사회성장애
 - 편부모
 - 빈곤
 - Educatet
 - 노동시장의 장기 주시매도 선택권



9) 재활혜택

- 사전 재활
- 고정금리



- 훈련비용
- 장애비용
- 개방된 고용
- 도구
- 창업



10) 업무능력 방식

- 업무능력 방식은 2003년 1월 1일부터 덴마크법에 따라 "spacious labour marked" (넓은 노동 표시) 범위 안에서 의무가 되었다.
- 이 결과 약 6,000명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능력 방식”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논제는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과 관련한 그 정책의 도입 효과를 조사할 예정이다.

11) 핵심 문제

- 핵심질문은 “업무능력 방식”과 관련한 훈련이 사회복지사들을 담당하고 있는 시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끈 것인가 하는 점이다.

12) Jurgen Habermas

- Jurgen Habermas는 “현대의 상식”을 구하기 위한 재 현실화된 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이다. 그는 현대 세계를 인지하는 방법과 관련한 토론에서 지도자격 역할을 하였다. 그는 유럽의 문제점을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이후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13) Niclas Luhmann

- Niclas Luhmann은 현대사회를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론가들의 대표자이다. Habermas 마찬가지로 그는 세계를 “시스템 월드(제도적 세계)”와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것(현실적 삶)”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는 모든 개인 간 상호작용은 항상 체계적이며,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개입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관계에 그들의 인식을 순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4) 그 과정의 개발과 실행

- “업무능력 방식”과 관련된 과정의 개발과 실행을 위하여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중앙 집중적으로 개발된 개념은 다른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지닌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15) 목 적

- 그 과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균질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같은 회사에 고용되었으나 다른 코스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실시한 3가지 인터뷰에 기반 하였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 그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과정의 성취 목표가 성취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
- 그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일상의 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요소를 택했다. 그 법의 취지: 업무능력 방식은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치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그 방식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 신념, 배경에 기반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16) 장애로부터 자원까지

- 초점을 장애에서 자원으로 옮기는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만약 사회복지사가 그녀의 교육에 앞 서 공익서비스 분야보다 다른 분야에 업무 경력을 가진다면 만약 업무 경력이 더 빈약한 것보다 장애에서 자원으로 옮기는 초점의 범위가 넓어진다.

17) 위험성

- 위험성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표준적인 일상으로 그 방식에 모여 들고 민원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합리적인 어떤 것, 초석 그 자체가 되는 복잡한 전문적인 판단을 피한다는 것에 있다. 관계당국들은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숨기고, 목표와 수단과 관련한 표면적인 공감을 만들어 낸다.

18) 교육의 변화

- 나는 민주주의, 문화, 개인적인 인간존재를 위한 중요한 매개변수가 되는



교육으로부터 오늘날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강요된 금전적 정치 도구로써 교육의 변화를 경감한다.

- 짧은 시간에 가장 저렴한 해결책 : 비용 편익

② 시사점

1) 보편적 복지

- 소득이나 기여, 계층의 차이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음. 방문했던 대부분의 노인, 청소년, 장애인 기관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함.

2) 통합적 운영

- 보건, 복지, 고용이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과 서비스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별, 서비스 영역별로 법과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3) 시민의 욕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갈등을 피하거나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지 않고 무엇보다 시민의 욕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함.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효과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컸음.

③ 수원시 정책에 적용(제안 사항)

1)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수원시에서 제공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보완하는 작업 필요. 즉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일해야 함.



2) 보건·복지·고용의 통합적 접근

- 북유럽에서는 공공을 중심으로 보건, 복지, 고용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수원시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각 분야의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되고 성숙되었지만,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행정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서비스의 분산, 비효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통합적인 행정 구조 개편이 전제되어야 함.





2. LYNGHUSET 장애인센터

- 덴마크 코펜하겐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센터 4곳 중 하나로 2006년 제정된 사회 서비스법에 의하여 설립된 다장애 혹은 발육장애 성인들을 위한 시설
- Lynghuset(링후스)는 사막에서도 피는 링이라는 꽃이 있는데 링후스는 그 강한 꽃의 이름을 딴 집



① 기관소개

- 1) 서비스 대상(대상 선정 방법 등: 나이, 소득 수준, 지역, 서비스 우선순위 등)
 - 대상의 선정은 면접을 통한 선정으로 중증장애인(다중장애)에 서비스가 우선됨
 - 20~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29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음(거주지 코펜하겐시)
 - 장애인을 대상을 서비스를 하므로 소득수준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움
- 2) 서비스 내용(상담, 재정 지원 등)
 - 대부분 중증장애인이므로 다양한 전문가(물리치료,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들이 24시간 장애인을 돌보고 있음
 -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장애인1명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수립하고 치료 및 개선방안을 마련
 - 재정지원은 센터 순수 운영비만 45억 내외이고 장애인 1인당 1억4천만원 내외 지원 재원은 국비75%, 지방비25%



3) 전달체계(운영주체, 서비스 전달 기관 또는 조직, 인력 등)

- 운영주체는 코펜하겐시
- 장애인센터 인원 60여명으로 코펜하겐시 소속 공무원
- 인력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치료사, 영양관리사, 심리상담사, 간호원, 영양사, 교육학자 등 다양한 인력구성
- 장애인1명에 다양한 인원이 투입되어서 서비스 진행

4) 재정(재정확보 방법: 조세, 이용료, 후원금 등)

- 전액 조세부담
- 입소료를 내고 집세, 생활비등을 장애인 연금으로 내고 있으나 이 부분이 장애인센터 운영에 중요 수입은 아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

② 시사점

1) 민관협력 방법

- 해당 센터에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
- 자원봉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 산책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에 안내자 역할정도로 봉사자들을 받고 있음

2) 특징, 장점 및 단점(주의할 사항)

- 전문가들의 운영으로 자부심이 강한 모습
- 모든 직원이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인식
- 한국에 생활시설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이들은 아파트형태의 개인 주거공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이 부분도 탈 시설화로 보여짐

3) 지방정부의 역할(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장애인의 처우가 우리나라 지방정부와의 지원이 차이가 큼
- 현재 우리 지방정부에 바라는 점은 장애인 실태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수원시 정책에 적용(제안 사항)

1)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

- 이곳에서는 장애인에게 아파트 형태의 개인 주거공간 제공 및 충분한 복지 수당으로 시설입소 비용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누리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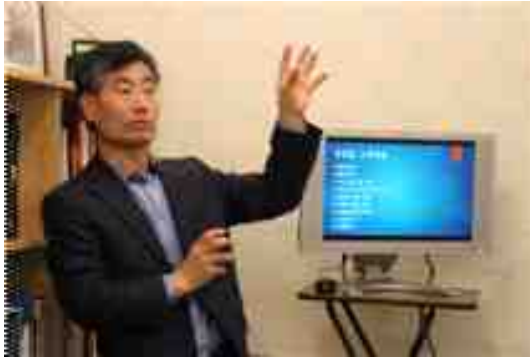
2) 공공성이 강조되는 복지

-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공공이 책임지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 제공으로 서비스도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음. 수원시에서도 전문적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교수님 “북유럽을 넘어 한국적 복지로”



1) 스웨덴의 사회적 배경

- 스웨덴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갖고 있음.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나 정치적 권력은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 스웨덴 의회는 1971년 이후 단원제이며,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됨.
- 스웨덴은 18세기말까지도 매우 빈곤한 국가였으며,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였음.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급속히 산업화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의 주요공업국의 하나가 되었음.
- 스웨덴의 복지국가 개념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임.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음.
- 복지사회를 위한 계획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실행되었음. 1930~40년대 초기 복지국가모형의 개발, 1950~70년대까지 복지제도의 완성, 1980년대 이후 1990년까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 2000년대 이후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의 철학

- 개인과 시민의 형성
 - 1,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사람들의 죽음, 장애 발생 등 전쟁의 피해로 인해 군인과 가족들은 ‘왜 국민의 의무만 있는가, 국가의 의무는 없는가’라는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함.

- 마샬(T. H. Marshall)은 권리를 시민권(자유권; civil right), 정치권(참정권; 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개인은 사회와 국가에 우선하며, 권리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연권 혹은 인권이라고 봄.
-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주로 자유권(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유 재산권 보장), 19세기에는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적 권리(자의적으로 체포되지 않고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종교적 권리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거나 투쟁하였음. 20세기에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건강, 교육, 적정한 생계비)에 초점이 맞추어 발달해 왔음.
- 시민 삼권을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 북유럽 국가이며, 1930년대 연구된 보고서(이론서)들을 바탕으로 복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이 마련됨.
- 스웨덴 사민당의 장기집권 기간인 1932년에서 76년까지 44년 동안 스웨덴 복지모델이 완성되었음.

○ 사회, 교회

- 사회는 사회적인 공동책임성에 대한 부분임. 공동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신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 스웨덴도 바뀌고 있으나, 선별적 복지는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사회를 분리시킴.
- 2000년부터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음. 1800년대 이전만 해도 교회에서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였음.

○ 가난, 빈부격차, 행복, 국가의 책임, 개인의 의무와 권리

- 스웨덴은 정책 공조가 많음. 5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며, 정부는 다수가 반대하지만 않으면 성립 가능함.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시민적 의무와 권리가 강조됨.
- 한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책임성과 의무성에 대한 부분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 사회적 공동 책임성이 필요함.



3) 북유럽의 특징들

- 복지국가, 행복국가, 국민 삶의 질이 담보되는 국가
 - 복지국가, 행복국가, 국민 삶의 질이 담보되는 국가, 분배가 잘 이루어진 국가 (양극화가 없는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금이 높은 국가, 부패가 낮은 국가가 되어야 함.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모든 사회적 악의 근원은 부패인 경우가 많음. 친족주의 또는 나와 내 식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부패의 시작임. 따라서 부패를 끊는 것은 신뢰국가, 관용의 국가로 가는 길임.
- 책임정당 정치국가, 신뢰국가, 관용국가
 - 사회에서 갈등의 요소는 비관용주의임. 흑백논리가 팽배한 나라일 수록 대안적 사고에 대한 인정을 안 함.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국가와 관용국가이며 신뢰와 관용의 확보가 중요함.
 - 우리는 어떻게 복지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정치적 대립시 한국은 협상에 나오지도 않으며, 모든 정치가 교착상태임. 한국은 어떻게 신뢰사회와 관용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북유럽의 복지를 만든 맥락들.
 - 역사적 맥락 :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이해로부터 시작해야함. 역사적 맥락인 1930년대 ~ 1970년대 복지 논쟁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적 맥락 : 사람들의 가치 기준, 행태, 신뢰체계, 믿음, 관용 등 이런 것들이 문화적 맥락으로 접근해야 함.
 - 정치적 맥락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행태, 생각, 규범)들은 헌법, 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길들여진 것임.
 - 경제적 맥락 : 스웨덴은 영국에 비해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었으며, 귀족정치의 뿌리도 깊었음. 경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됨. 1800년대 중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농민이 노동자로 이동하게 된 경제적 맥락이 있음.
 - 지금의 문제는 한, 두 세대 전의 문제들로 인한 것임. 따라서 역사적 맥락의 이해 없이는 현재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함. 법정신을 알기 위해서도 역사적 맥락,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아야 함. 이러한 맥락들이 그 당시의 결정체로



법이 만들어지고, 행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오게 된 것임.

- 스칸디나비아의 삶의 원칙 : 얀테(jante)의 법칙과 라곰(lagom)
 - 얀테(jante)의 법칙 :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믿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등 겸손과 조화의 가치가 나타남. 너무 드러내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오히려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북유럽 사회임.
 - 라곰(lagom) :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함’을 의미

4)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복지국가 형성과정에 우리 국가 및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며, 10~20년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역할이 중요함.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야 함.
- 정치의 변화와 책임정치
 - 위로부터의 책임 정치가 필요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정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 또한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 충원제(공천제)를 바꾸어야 함.
 - 정당원들을 모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북유럽에서는 정치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며, 사회·관용·배려 등 민주적 시민에 대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짐. 중학교 2 ~ 3학년이 참여하는 청년 정당원이 있으며, 선거권은 없으나 학생 투표, 청년위원회 등 청년 조직이 활성화 됨. 오스트리아의 경우 16세 선거권이 부여됨.
- 교육된 노동자의 역할
 -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ABF)에서 노동법, 세계사, 사회 공부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교육을 추진함. 정당의 뿌리는 아래로부터의 힘이며, 내부적으로 변화에 대한 몸부림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체계가 필요함.
- 정치인의 책무성
 -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25세~30세 이전에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래의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함.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없고, 정치적 책임성과 희생, 사회적 책무를 중요시 함. 한국과 북유럽 중학생의 사회성 및 부패인식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성공을 위해서는 부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복지 철학 및 복지 정책

- 현재 복지의 대상과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복지 철학 및 정책이 부재함.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제도, 정치개혁, 행정개혁, 경제개혁, 세제개혁, 인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복지국가를 만든 사회적 힘은 정책과 교육이 같이 가야 함. 사회적 힘은 내 것이 아닌 것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 마련, 재원, 부패 해결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생각이 필요함.

5)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

○ 사회적 책임의 확산

- 복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소비세 등 간접세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논리적 설득을 통해 서서히 변화를 요구해야 함.
- 형평성 측면에서 번만큼 내는 것, 자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내 책임을 다 하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자식과 손자대 까지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단기적으로 세금을 안 내면 이익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발굴과 정치 묘목 기르기

- 기초지방자치단체 제도 살리기, 의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함. 위로 부터 변화(위에서 이끌어지는 동력)가 필요함. 큰 변화의 틀은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함. 정치 묘목 기르기 운동도 필요함.
- 1938년의 노동자의 완전고용과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합의한 살쥬바덴협약은 스웨덴 협조주의 정신의 결정체이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성공시킨 배경임. 한국의 협조주의 정신이 필요함.



- 정당의 변화, 노사간의 변화, 시민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운동의 힘과 교육이 필요함.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10년 ~ 20년 후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 것임.





4. Attendo : Kampementets vård - och omsorgsboende

- 1985년에 설립 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너싱홈 민간관리 회사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전역에 분포
- 장애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노인케어사업 운영



1] 기관소개

- 위치 : Kampementsgatan 2, 115 38 스톡홀름
- 홈페이지 : <http://hitta.stockholm.se/enhet/57d442ae-0f3d-486a-a325-1e03dca2d6ad>
: <http://www.attendo.se>

○ 비전 :

- ① 욕구에 귀를 기울인다.
- ② 존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③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⑤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비전을 위한 핵심가치

세가지 핵심가치(전문적 지식, 헌신, 고려)는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비전을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① 전문적 지식

- 개인의 욕구와 선호도 이해
- 제공 서비스 공개를 통한 우수기관으로서의 자부심
- 적절한 시기에 투입
- 세부사항에 대한 철저한 주의
- 이용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② 헌신

-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참여
- 약속을 통한 신뢰형성
- 기대이상의 효과를 위한 노력
- 업무에 대한 만족도 향상



③ 고려

- 이용자들의 보안 및 안전
-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행동
- 관계중심의 대응



◆ 시설현황

○ 총6F, 96개의 개별실 마련

- 세대(1인)당 개별 방 보유
- 1~3LDK(Living dining kitchen으로 방, 거실, 주방을 뜻함.)





-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으로 구별
 - TV시청, 담회 등
 - 영화상영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층별 주방, 거실, 넓은 발코니



- 개인 룸: 27~29 평방미터



- 작은 스파 운영





○ 야외정원

방문자와 이용자가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 방문현황

1) 서비스 대상(대상 선정 방법 등: 나이, 소득 수준, 지역, 서비스 우선순위 등)

- 나이 : 65세 이상 노인케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치매환자, 일반 요양 거주자)
- 소득수준 : 무관
- 거주지역 : 무관
- 서비스 우선순위 : 운영지침에 근거

2) 서비스 내용(상담, 재정 지원 등)

○ 서비스 구현 체계

- 서비스는 계획, 실행, 평가 및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① 계획

: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 져야 할 기초 계획으로 실행계획, 치료계획, 재활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실행

: 모든 업무시스템의 계획, 절차, 서비스의 질 등은 개인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진행되며, 작업의 실행은 내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의 결과에 따라 적용된다.



③ 조사

- : 정기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④ 개발

- : 내부감사, 외부감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 직원 아이디어를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
- : 직원 업무능력 향상
- : 최근 이슈 및 연구자료 모니터링



○ 서비스

- 주거 및 케어, 식사
- 카페, 음악감상, 엔터테인먼트, 여가활동 및 게임 등 운영
- 다양한 활동 계획 및 운영
- 다양한 행사 및 축제에 참여, 진행

3) 전달체계(운영주체, 서비스 전달 기관 또는 조직, 인력 등)

○ 운영주체

- 민간기업 Attendo

○ 인력

-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치매계획수립 직원(사회복지사 또는 서비스관리자)

4) 재정(재정확보 방법: 조세, 이용료, 후원금 등)

○ 재정확보

- 이용료로 충당

○ 이용료

- 개인연금으로 충당, 부족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최대이용요금은 개인연금(소득, 주거비용, 기타비용)을 넘어서지 않음.)



② 시사점

1) 민관협력 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 작성

① 자율성과 독립의 원리

: 동등한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기초

② 대화의 원리

: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 참여와 신뢰 형성

③ 서비스 품질의 원리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복지에 적극적 참여

④ 지속 가능성의 원칙

: 장기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제공

⑤ 투명성의 원칙

: 활동프로그램과 공공행정을 알려야 할 의무 및 발전과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⑥ 다양성의 원리

: 동등한 경쟁조건을 위한 다양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 제공

2) 특징, 장점 및 단점(주의할 사항)

○ 노인돌봄시설로서의 안락한 공간

: 1세대 1인 거주 - 개인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1인 공간 제공

○ 전문관리를 위한 인원 확대

- 보호인원 층별 16명, 총 6층 96명 수용

- 전문 관리인원 층별 20명, 총 120명 활동

3) 지방정부의 역할(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노인의 존엄과 복지 전반에 대한 존엄성과 자율성 인정

-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안내

- 지원에 대한 조사

- 수혜자 중심의 상담을 통한 업체선택 권리 제공



③ 수원시 정책에 적용(제안 사항)

- 노인 요양대상자에 대한 전수관리를 통한 수원시 적정 시설설치
 - 스웨덴 노인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코문:kommun)에서 관리
 -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함.
 - 시 차원에서의 요양입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수혜자의 입소시설 선택권 제공
-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한 다양성 제고
 - 시설의 세금감면을 통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권장
 - 시설 간 입소자모집에 대한 경쟁이 아닌 동등한 경쟁조건을 위한 다양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 설치(Lex Maria och Lex Sarah)
 - 스웨덴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렉스사라규정에 의한 렉스마리아 운영





5. 스웨덴 국립 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① 기관소개

1) 서비스 대상(대상 선정 방법 등: 나이, 소득 수준, 지역, 서비스 우선순위 등)

- 고용주, 구직자, 장기실업자, 창업자, 이민자, 소외된 자 우선

2) 서비스 내용(상담, 재정 지원 등)

○ 주요사업

-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고용주와 매칭
- 실업보험급여가 전환보험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 이주민의 스웨덴어 학습, 구직에 필요한 지원(16분야에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체평가서 12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 스웨덴 사회보험센터(Försäkringskassan)와 공동으로 직업재활업무(질병, 장애로 인해 일에 제한 받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게 함.)
- 국제협력 업무(EU, WAPES (공공 고용 서비스의 세계 협회)등의 회원국으로서 효율적인 공공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

- Platsbanken 일자리 은행에 일자리 광고 무료 제공
- 사이트에 등록된 17만 구직자 정보 열람가능
- 채용 과정 지원
- 국립직업재활소 구내에 채용 회의



- 유럽 연합 (EU) / EEA, 스위스 등 다른 채용 솔루션에 도움

○ 구직자를 위한 지원

- 노동 시장 프로그램(노동 시장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변화)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구직이
어려운 구직자(스웨덴어 부족한 자, 업무와 관련된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관련 교육이 부족한 자)를 채용 할 경우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

3) 전달체계(운영주체, 서비스 전달 기관 또는 조직, 인력 등)

- 국가가 운영주체로써 각 지방 자체단체가 운영하며, 근무자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 직원은 대략 120명(다양한 전문가 구성)



출처: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직업소개소



② 시사점

1) 민관협력 방법

- 스웨덴의 일자리3개중 1개는 공공부문처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
- 청년실업자들은 고용사무소에 잘 등록하지 않음 이에 청년단체와 관계를 통해 발굴하려고 노력함.
- 고용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 의무는 없으며 하지만 소외계층(장애인포함)을 고용시 금융 및 채용인센티브를 통해 소외계층 고용

2) 특징, 장점 및 단점(주의할 사항)

-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직자와 고용주를 효과적으로 모집,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자를 우선시, 영구적인 장기고용 증가에 기여함.
 -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직자에 대해 구직자 배경, 학력, 성적, 전직 등을 평가후 이력 파일로 관리를 하여 교육, 직업경험프로그램, 근로 시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고용담당자는 매달 적어도 4번 고용주를 방문하고 시스템에 등록 된 모든 고용주와 적어도 1년에 한 번 연락 등을 통해 고용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 매칭함.
 - 청년실업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움 특히 외곽지역 더 취약함.

3) 지방정부의 역할(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업무 감당



③ 수원시 정책에 적용(제안 사항)

1) 지원시스템을 과학적 및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 고용주와 구직자의 매칭 지원을 위해 우선 구직자 상담, 인력을 구체적(배경, 학교, 전직, 거주지, 욕구 등)으로 분석 및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를 통해 이력 파일 관리
- 다양한 전문가(심리학자, 시스템 개발자, 운영기술자, 인적자원전문가, 경제학자, 통계학자, 연구원, 변호사, 직업 치료사 등) 구성 또는 자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매칭

2)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자를 우선시 하는 보호시장의 확대

- 공공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소외계층의 고용유발을 위해 소외 계층에서 생산하는 용역, 물품 등을 구매를 통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시 할 때 복지비용의 감소와 세금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음.

3) 장기고용 운영시스템 개발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소득의 평준화(연대 임금제)를 통해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이직이 발생되므로 구직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비용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는 문제발생
-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책임 있는 고용정책이 가능함.





6. 아난탈로 예술센터(AAC: Annantalo Arts Centre)

○ 개요

Annantalo는 Helsinki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관이다. Annantalo는 예술 교육, 전시회 과 무용공연업 및 무대공연오락업을 제공한다. Annantalo는 학교들과 협력하여 예술 수업 다니러 온 초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낮에 센터는 가득 찬다. Annantlao의 목적은 Helsinki에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예술과 문화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예술가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침으로써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다.



① 기관소개

1) 서비스 대상

- Annantalo 예술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가족을 위한 예술의 집이다. 우리의 목표 그룹은 헬싱키 18세 미만 시민이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있는 어린이와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예술 센터이다.

2) 서비스 내용(상담, 재정 지원 등)

- 아난탈로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전시, 댄스 공연, 극장 작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아난탈로의 예술 과정은 애니메이션, 아키텍처, 그래픽, 도자기, 시각 예술, 음악 유아(baby) 클럽, 문자 예술(word art), 만화(cartoons), 옷감·천(textile) 예술, 댄스, 극장, 퍼핏 극장(puppet theatre), 사진, 비디오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아난탈로는 80개의 과정이 제공되며 이 코스에 약 800명의 어린이와 젊은 청소년이 참가하게 된다. 학습언어는 핀란드 고유어이며 4개의 과정에는 스웨덴 언어도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3) 전달체계(운영주체, 서비스 전달 기관 또는 조직, 인력 등)

- 주중 학교 수업 시간대에 센터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예술 수업(art classes)을 받고 있고 연중 수회에 걸쳐 가족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 핀란드의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을 통하거나 한 두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 예술 교육센터, 학교와 교사, 박물관·공연장 등 여러 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¹⁾

4) 재정(재정확보 방법: 조세, 이용료, 후원금 등)

- 주중 학교 수업 시간대에 센터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예술 수업(art classes)을 받고 있다. 연중 수회에 걸쳐 가족 이벤트 행사도 진행 된다.
- 아난탈로 센터는 이전에 학교 건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건축가 Gustaf Nystrom에 의해 설계 되었고 1886년에 완공되었다. 헬싱키시에서 1987년에 이 건물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센터로 변경 하였으며 현재는 헬싱키시의 문화 담당부서(cultural office)에서 관리하고 있다.

1) <http://lyh3056.blog.me/20132104796> 에서 발췌. 2015.4.23. 접속



- 아난탈로 예술 센터의 목표(aim)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헬싱키시에서 예술과 문화를 경험(experience)하고 볼(see) 수 있는 친근한 환경과 최적의 조건(right conditions)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 핀란드는 어린이들과 엄마들의 교육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로서 우리 한반도 보다 면적은 1.5배 크지만 인구는 500만 명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고 아난탈로와 유사한 예술교육센터가 전국에 800여 곳이 있으며 아기 때부터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 모든 예산은 헬싱키 시에서 부담하고 당연히 시 재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5) 아난탈로 예술센터 주요 프로그램





(1) 예술 교육(Art education)

아난탈로의 예술 교육 과정들은 헬싱키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술을 학습하는데 있어 그들을 흠뻑 빠져들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적인 예술가들(professional artists)과 예술 교사들(arts teachers)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교습은 개별 교사들의 예술에 대한 개인적, 전문적 관계(relationship)를 각각 반영한다.

(2)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Co-operation with schools)

아난탈로 센터는 학교와 친밀하게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5×2 예술 교육 과정과 문화 코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케어 센터들과 학교 그룹들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각각의 커다란 테마와 문화적 전시회를 위해 새로이 기획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면 가이드 투어나 드라마 워크숍들이 해당된다. 아난탈로 센터는 또한 데이케어 센터나 학교들을 위해 콘서트나 공연들도 개최하고 있다.

5×2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헬싱키의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 제공되는데, 총 5주 동안 일주일에 2시간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예술과 예술적인 작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인 예술가와 예술 교사들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 5×2 예술 과정들은 각 학교들의 자체적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헬싱키에 있는 각각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소한 한번은 5×2 예술 교육 과정에 참여토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문화적과정(cultural courses)은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와 상급학교(upper secondary schools), 그리고 기술학교(polytechnics)에 제공되며, 이들 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이라는 시각(perspective)을 통해서 인생과 관련된 현상들을 탐험하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들은 당시 헬싱키에서 개최되거나 일어나고 있는 예술과 문화적 이벤트 행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난탈로 센터는 예술 기관·단체, 헬싱키 시 교육부서, 학교들과 함께 이러한 이벤트들의 테마를 만들어 가며 이들은 학교



클래스 수업들에도 적합하게 된다. 이러한 테마들은 사랑(love), 시민(citizenship), 두려움(fear) 등을 포함하며, 매년 약1,000명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예술 과정에 참여한다.

(3) 각종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Exhibitions & Events)

아난탈로의 전시회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문화(culture)와 관련이 있으며 예술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전시회들은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로부터의 그룹뿐만 아니라 종종 일반 대중을 위한 관련된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아난탈로 전시회들의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작업하는 교육(training)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 활동적인(interactive) 예술 투어와 드라마 워크숍들이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사전에 기획·조정 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해 학생들은 아난탈로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학습 자료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전시회에서 제기된 테마와 질문들은 아난탈로 예술 레슨에서 토론되어지며, 이러한 테마와 주제들은 예술 그룹 사이에서 장기 프로젝트 과제를 위한 기초(basis)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지난 과거에 예술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품들도 전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특정한 주제(theme)에 따라 전시됨. “아난탈로 젊음”(Annantalo Youth) 전시회는 젊은 예술 학생들의 작품들이 하이라이트(highlight) 받게 해주며, 이의 목적은 꿈이 있는 젊은 청소년



예술가들에게 전문적인 전시회 프로세스 과정을 익히면서 그들의 작품을 표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아난탈로의 전시회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입장료는 없다. 가장 큰 가을 전시회는 헬싱키 축제의 일부로 진행된다. 또한 아난탈로 센터는 각종 모든 가정들과 데이케어 센터, 학교들을 위해 이벤트, 공연, 워크숍들을 기획한다.

인터내셔널 Bravo!, 핀란드 Hurraa!! 어린이 극장 페스티벌들이 해를 바꾸어가면서 개최되는데 헬싱키 전역에 걸쳐 문화 기관들과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된다. 아난탈로 어린이들에 의한 극장공연들은 매년 봄에 개최되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매년 40개 공연에 달하고 있다.

(4) 지역 네트워크 참여 및 Small Size, Big Citizens! 프로그램



- 사이즈는 작지만, 커다란 시민!(Small Size, Big Citizens!) 이라는 문화 프로그램도 2009-2014년에 개최되어 유럽 전역에 걸쳐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부분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했다.

(5) 여름 방학프로그램

- 7-12살 까지 무료 예술 프리 과정운영
- 여름공원 DIY : 6월 한 달 매주수요일 4-8시 13세이상 아이들이 아난탈로 예술센터 앞마당에서 음악, 커피숍, 미니 해변, DJ, 농구, 탁구, 밴드 등,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고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시사점

1) 민관협력 방법

- 아난탈로 센터는 Lastenkulttuurikeskus라는 네트워크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는 전국에 걸친 10개의 지역적인 어린이 예술 센터들의 모임이다. 본 네트워크에서는 문화 이벤트를 위한 웹사이트 관리, 예술 교육 연구, 문자예술(word art) 사업, 예술 기관들과의 협력 및 공공 프로그램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 아난탈로 예술센터는 헬싱키에 소재한 학교들과 매우 친밀하게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다.(5×2 예술 교육 과정과 문화 코스)
- 핀란드의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을 통하거나 한 두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 예술 교육센터, 학교와 교사, 박물관·공연장 등 여러 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²⁾

③ 수원시 정책에 적용(제안 사항)

○ 수원시 아동 청소년 예술센터 설립 및 운영

낙후된 학교 건물이나 남문근처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이 센터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 시킨다. 수원시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전용 문화예술 교육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방과 후에나 주말(놀토)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 활동에서 자유로운 만큼 이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http://lyh3056.blog.me/20132104796> 에서 발췌. 2015.4.23. 접속



○ 청소년 교육센터 틴터(Teen Ter) 운영

헬싱키 청소년 교육센터는 헬싱키 시의회의 한 부서인 청소년부가 파견돼 있는 형태로 헬싱키 시에는 본 센터와 같은 청소년센터가 12개나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헬싱키 시에서 부담하고 당연히 시 재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무엇보다 본 센터 주변은 사실 시립아파트, 알콜중독자, 저소득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교육 및 경제 낙후지역이다. 이에 따라 탈선으로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센터로 이끌어, 학생들에게 사회의 중요성과 학습 및 교육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센터의 프로그램과 예산, 시설 등을 직접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청소년교육센터 틴터 운영이 수원시에도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1. 북유럽 복지의 특징

1) 권리이자 책임으로서의 복지

- 사회구성원이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 예를 들면, 실업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되더라도 2년간 소득의 80%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이러한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됨.
- 복지를 권리로서 누리기 위해 국민들은 50% 가까운 높은 세금 부담을 가짐. 이는 내가 낸 세금으로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됨. 또한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교육, 의료, 고용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여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음. 하지만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에 대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임.

2) 공공의 책임성

-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운영함. 정부는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짐.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의 약 75%가 공공의료이며, 그 지역 노인인구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공의 의무화 되어 있음. 이번에 방문한 덴마크의 장애인 시설도 직원이 모두 공무원이었음. 북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음.
- 공공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보편적인 서비스, 예방과 증진을 위한 접근이 우선될 수 있음. 최근에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혹은 영리 서비스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이 대부분을 차지함.
-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육과 복지서비스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짐. 즉 그 지역의 욕구에 맞게 제도와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며, 지방교부금이나 로빈훅세(세수가 큰 지역에서 적은 지역을 지원해주는 세금)를 통해 복지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3)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 정책 결정에 시민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함. 코펜하겐 시청에서 소개한 정책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Drug Room이었음. 이는 오랫동안 마약문제가 심각했던 슬램가에 안전하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이는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정책이지만, ‘적어도 약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물론 그 과정에서 중독치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하지만 일차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임.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효과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컸음.
- 서비스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노력함. 덴마크에서 방문한 ‘크리스티아니아’의 경우 1970년대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치 마을임. 정부의 제도권 밖에서 자율적인 규칙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최근에 법원에서 이 지역이 불법점거라고 판결이 났지만, 강제적으로 철거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음.



〈Drug Room〉



〈크리스티아니아〉



4)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 북유럽 복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편주의임. 즉 소득이나 기여, 계층의 차이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음. 방문했던 대부분의 노인, 청소년, 장애인 기관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였음. 물론 세금 등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됨.
- 코펜하겐 시청의 경우 보건, 복지, 고용이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과 서비스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별, 서비스 영역별로 법과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5) 타협과 실용의 정치문화

- 북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타협과 실용을 강조하는 정치문화임.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1936년 ‘샬트세바덴 협약’을 통한 노사대타협, 노사정 회의를 위한 목요클럽 등의 역사적 경험이 상호존중과 타협을 통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정치문화를 구축하였음.
-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하며, 어떤 정책이든 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한번 합의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유지하고자 노력함.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고 실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 이러한 정치가 가능한 기저에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임.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80%에 가까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자랑함. 투표일을 공휴일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함. 또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언론의 감시와 국민의 눈이 매우 비판적이며, 당장 지지율의 급락으로 나타남. 한 예로 덴마크의 라르스 뢰켄



라스무센의 경우 국제기구 활동을 하는데, 비행기 일등석을 이용하여 세금을 남용했다는 사실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했음.

6) 자유로운 교육

- 좋은 정치 사회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자유로운 교육으로부터 출발함. 북유럽 국가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며, 오히려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누구나 교육의 욕구만 있으면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짐. 이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중증 장애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의 목표가 엘리트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초등교육의 경우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 전혀 없으며, 중학교를 마친 후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애프터스쿨이라는 1년간의 교육과정 제공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 방문 기관 중 하나인 핀란드의 아난탈로의 경우에도 예술 교육의 초점이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 공포, 공동체 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음.
-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함. 예를 들면 대선이 있을 때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신청 받아서 어른들과 똑같이 지지정당을 선택하고, 실제로 각 정당에서 나와서 정책 토론을 실시하며, 선거일에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함.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선거 결과가 실제 결과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임. 학교 교육이 실생활과 밀접하며,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교육내용이 이루어짐.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의 복지와 문화 등에 대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함.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웨덴의 경우 기업사회보장제, 혹은 고용세를 통해 복지기금을 담당하는 등 기업이 사회 복지의 한 축을 떠받치는 책임성을 가짐.



-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며, 기업의 이사회에 일반 사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사협력의 문화가 뿌리 박혀 있음. 이는 역사적으로 노사대타협의 문화가 오랜 기간 정착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기업 문화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효율성이나 성장잠재력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8) 선순환적 복지 모델

- 북유럽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이며 위기대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임. 이는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모델로서, 탄탄한 복지의 토대가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됨.
- 교육분야의 공공화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노동력을 창출하며, 양성 평등적 가족정책 및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우수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특히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통해 고용주에게는 해고의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임. 즉, 실업급여 등을 통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여 해고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며, 직업교육이나 적극적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의 확대가 곧 경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환 할 필요가 있음.

9) 복지를 만들어온 역사적 과정

- 북유럽의 복지가 전세계 행복도 1위의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절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 현재의 복지 모델을 만들기 까지 몇 백 여년 이상의 투쟁과 합의와 노력이 이루어졌음. 그 과정을 통해 평등, 자유, 공동체적 교육, 정치, 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복지 제도를 발전시켜왔음.



2. 수원시예의 합의

1) 수원시 복지정책을 위한 합의

(1)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역할 확대

-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특히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높아지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매우 한계가 있음. 특히 지방정부가 복지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해야함
- 시민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함.

(2) 수원시 복지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

- 복지가 정치적인 구호로서 남발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함. 또한 권리, 책임, 연대로서의 복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북유럽 복지가 유일한 대안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음. 각 나라의 다양한 복지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원시에 맞는 복지모델이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회, 공공, 민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많아져야 함.

(3)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복지

- 복지가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문제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삶의 질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 정책이 시민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야하며,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함.



-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 생활시설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별 욕구 중심으로 접근하며, 지역사회에서 누렸던 자신의 삶을 시설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이런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
- 합의 정치, 책임 정치,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가능할 것임. 시민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해야함.

(4) 보건·복지·고용의 통합적 접근

- 북유럽에서는 공공을 중심으로 보건, 복지, 고용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수원시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각 분야의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되고 성숙되었지만,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행정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서비스의 분산, 비효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통합적인 행정 구조 개편이 전제되어야 함.
- 특히 북유럽과 같은 선순환적인 복지 모델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정책, 그리고 고용과 복지 간의 통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자를 우선시하는 보호시장을 확대하는 것임. 즉 공공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소외계층의 고용유발을 위해 소외계층에서 생산하는 용역 및 물품 구매를 통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시 할 때 복지비용의 감소와 세금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장기고용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책임 있는 고용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복지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토대에 있어 교육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 북유럽의 자유롭고 참여적인 교육, 창의적인 학습,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민주시민 정치교육이 그 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됨.



-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창의적인 체험활동, 자유로운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함.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2) 복지 실천 전략 제언

(1) 사회복지포럼

- 수원시의 장기적인 복지 비전을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함. 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시민 및 학계 등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이슈에 대해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함.
- 현재 수원시에서도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하고 있는 정책 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연계하여 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실제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어야 함. 또한 보건·복지·고용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음.

(2) 복지인권센터

-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복지인권센터를 운영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특히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상충될 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필요. 최근 이용자의 폭력과 폭언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안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 이렇게 권리가 상충될 때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수원시는 2015년부터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및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인권교육

- 수원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함. 특히 지역사회 가까이에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수원시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권교육을 실시함.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복지권 등에 대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 및 수원시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개발함.
- 수원시 아동청소년 예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즉 낙후된 학교 건물이나 남문근처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곳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용문화예술 교육 센터를 조성하는 것임. 그리고 청소년 교육센터인 툼터의 운영도 필요함.

(4) 시민의 권리와 책임 강화

- 수원시 복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시민 참여 방안을 확대함.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계와 시민 단체,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7개 분야의 시민 전문가 23명이 시설 위탁 및 각종 사업계약 시 참관하는 청렴감시와 시의 조사 활동 참여, 시정 정책제언 등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복지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수원시(지방정부)의 복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의 협조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 및 중앙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함.
- 선거 시 복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수립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함.



3. 북유럽 연수의 성과 및 향후 제언

1) 성과

-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최근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한계가 있음. 하지만 북유럽의 선진적인 복지 모델을 경험함으로써, 수원시 복지의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그려볼 수 있었음.
-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토대들을 이해할 수 있었음. 즉, 복지를 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 교육, 문화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음.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많은 함의를 제공하였음.
- 연수단에 의회, 공공, 민간, 시민, 학계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수 내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수원시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협력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2) 제언

- 첫 연수에서 복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연수에서는 매년 주제를 정해 핵심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년차 : 아동 · 청소년 교육과 복지
 - 3년차 : 적극적인 노동복지 정책
 - 4년차 : 보건과 복지의 통합
 - 5년차 :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
- 복지국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 연수원들 간의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한 사전 기본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기관방문 일정 및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배정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수기간 중 전체 논의 시간을 사전에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V. 연수단 소감문

김형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흑한과 짙은 어둠속에서 한 해의 반을 살면서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몰락한 나라의 아픔을 이기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행복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북유럽 나라들! 행복을 만드는 길을 배웠습니다.

흑한을 이겨낸 봄꽃, 노르딕!

국가경쟁력, 1인당 국민소득, 가장 매력적인 좋은 투자 환경, 부패하지 않은 나라,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 지수, 높은 행복 지수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선두를 차지하는 꿈같은 나라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일컫는 스칸디나반도의 노르딕 국가들이다.

수백 년에 걸쳐 조성된 시가지와 색색의 파스텔톤 건물들, 질푸른 숲과 맑은 호수, 수 많은 섬들을 낀 바다와 어우러진 그림 같은 도시. 잘 가꾼 자연환경과 다듬어진 국토, 날씨가 개이면 카페 앞 테이블은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광장과 거리에 사람들로 붐비지만 모두가 밝고 여유로워 보인다.

우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북유럽 해외연수단 20명은 8박11일의 여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의 사회복지시설과 자연환경, 문화유산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시청사와 LYNHUSET 장애인센터 방문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하였다. 노인 너싱홈, 고용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시설방문과 스웨덴 현지 한국인 최연혁교수님과의 간담회 등 공식일정 진행. 연수단 일행 대다수가 사회복지 각 분야 전문가여서인지 하루동안 지친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저녁에는 현지 각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시설에 대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인천공항에서 헬싱키를 오가는 직항로가 아닌 두바이를 거쳐 가는 비행으로 항공편을 여섯 번이나 갈아타고, 시차극복까지 겹쳐 심신이 지친 힘든 여정이었다.

그렇지만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던 북유럽 나라들의 형편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막연한 지식들이 체험을 통해 생명력 있게 체득된 실감나는 값진 여행이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덴마크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수탈로 성장한 나라도 아니며, 기존자원이 빈약한 나라. 조상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지평선이 보이는 척박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어 일찌감치 낙농업이 발달하였지만, 산업국가로도 변신하는데 성공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풍광의 반도, 9천여 개의 섬, 호수로 유명한 스웨덴은 해적과 대대적인 해상원정으로 성장한 바이킹의 후예로, 비교적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인 나라였다. 세계 제1차대전 후 대공황을 거치며 150만 명이 이민을 떠났던 가난한 나라로, 농업개혁과 산업화로 눈부시게 성공한 나라라고 한다.

호수와 침엽수림으로 뒤덮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핀란드는 660년간의 스웨덴 속국에 이어 제정러시아의 지배까지 770년간 피지배 역사 위에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이다. 1907년 독립 후 눈부신 산업 발전과 정치경제 민주화를 이룬 나라를 이루었다.

노르딕국가로 불리는 이 나라들은 여름철 관광지로 각광을 받지만, 북위 50°가 넘는 북극권 국가로 일년의 반 가량 어둠과 혹한의 계절을 살아간다. 이들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고자 국민들이 합심 협력하여 오늘날의 기적을 이룬 공통점이 있다.

이 나라들의 복지서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복지는 ‘인간존엄의 평등정신’하에 도와주어야 하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또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복지서비스 행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국가경쟁력’,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나라’ 순위가 말해주듯, 국가의 기업정책, 고용정책, 노동정책이 앞선 나라들임을 실감하였다.

사업주가 조건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 규제도 없으며, 법인세율도 유럽주요국보다 낮고 규제도 적다. 성실하고 기술수준이 뛰어난 우수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다. 국가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실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한다.

이 나라들의 우수한 노동력은 각국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시스템과 무상의무교육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를 주창하며 농민학교로 시작된 덴마크의 ‘그룬트비 교육’은 몰락한 나라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배운다.

스웨덴은 순환적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교육을 위한 휴직과 복직은 의무적이다. 교육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수업료는 물론 학교급식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 교육법과 커리큘럼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실용주의교육으로 실질적인 경험 쌓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육에 중점을 둔다.

주변국가에 비하여 자원이 빈약한 핀란드는 ‘평등주의 노르딕제도’로 평등, 창의성, 예술분야 등 기초교육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의 배움의 기쁨과 협업, 학생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을 중시하여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 나라들이 지구상 최고의 선진복지국가를 이어가는 저력은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과 지속적인 투자에 있다고 확신한다.

해마다 반 년은 지독한 추위와 짙은 어둠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처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몰락한 나라의 아픔을 이기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 대반전을 이룬 나라들!

흑한을 이기고 피어난 봄의 꽃들이 유난히 아름다운 것처럼, 노르딕 사람들은 현재도 미래도 아름다운 인생과 행복을 꿈꾸고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의 복지서비스를 쫓아가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도 북유럽국가들 못지않게 궁지와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공통점이 있다. 상대적인 빈곤 해결과 전국민 문맹 퇴치, 단기간에 경제적 도약을 이룬 경이적인 역사도 있다.

이번 해외연수는 복지선진국의 실재를 체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청소년육성의 소중함을 알게 한 큰 경험이었다.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의 뇌와 심장에 경고를 울리며, 설레게 한 신선하고 열정적인 여정

그야말로 즐겁고 신나면서도 나에게 경고를 울리는 여정이었다. 나는 이번 연수에서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정신보건에 입문한지 벌써 20년. 타성에 젖고 비판에 물든 그야말로 신선함이란 찾아 볼 수 없는 고리타분한 선배이자 리더였다는 것을 일깨워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소리치고 싶다.

난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과 흐름에 매우 불만을 가진 자중에 한명이었지만, 정작 내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수는 나의 뇌와 심장이 나에게 열정과 실천을 요구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아우성을 치게 만들었다.

24시간이라는 긴 비행을 마치고 코펜하겐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으로 향했다. 피곤하고 지쳐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나 우리 일행들은 굳건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코펜하겐 시청에 도착해서 시청건물을 보는 순간 놀라고 피곤한 마음이 싹 가셨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듯 한 건물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시청뿐 아니라 도시전체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롭게 고대 건축물을 드나들게 할 뿐 아니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곳에서 “나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첫 번째 경고가 울렸다. 그리고 시의 시정을 듣는 동안 보건과 복지와 고용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우린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슈화 했던 것이 민관협력 보건복지 연대사업이었다. 그리고 최근 고용과 복지를 중요하게 논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민관의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한 협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나 당연히 국가적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복지 안에 고용과 복지와 보건의 혜택을 받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바로 방문한 장애인센터에서도 똑같이 느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1급 장애인 시설인데 1명의 장애인에 매 듀티당 3명의 근무자가 상근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의 센터장은 오래도록 일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와 역사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심을 전했다. 나는 또 한번 반성하며 두



번째 경고가 울렸다. 다시 나의 신념을 점검하고 열정을 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이후에 가게 된 스웨덴에서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최연혁교수를 만나 북유럽 사회정책에 대해 듣고 세 번째의 경고가 울렸다. 사회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노력해야한다고... ‘정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정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니’라고 질문하는 듯했다.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50년, 100년을 투자해야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도 노력해야하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국민투표 96%를 자랑하며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국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는 젊은 층의 비난과 무관심은 도를 넘었고 이제 모두가 그럴 줄 알았다는 자조 섞인 무기력에 빠져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최 교수님은 북유럽의 교육정책으로 설명했다. 우선, 청소년 때부터 학교에서 정치와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당락에 관여하진 않지만, 선거에 맞추어 모의 투표를 진행해 선거가 끝난 후 선거결과와 모의 선거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던져주셨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나의 뇌와 가슴이 울리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부터 개선하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그 후 스웨덴과 핀란드를 경유하며 세 가지의 울림을 계속 느끼며 더욱 강하고 확고해졌다. 돌아가서 이번 연수를 그냥 경험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시작하자고... 다녀온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공고히 하고 실천하자는 굳은 결심이 나의 뇌와 심장을 설레게 했다.

우리가 일년을 공부하고 다음에 갈 연수팀이 꾸려지면 아마도 나는 열심히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연수팀이 다녀오면 우리의 힘은 늘어날 것이다. 향후 10년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무엇인가가 탄생할 것이라 자부하며, 연수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행운이라 확신하며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

함께한 연수팀 동료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함께 가면 천천히도 괜찮아

북유럽.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동경의 지역이 아닌가. 이곳을 내가 가게 되다니……. 그것도 여행이 아닌 복지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연수로 말이다. 정말 기뻐다. 어떤 분은 잘생긴 남자가 많은 곳으로 가니 배우자 문제도 해결하고 오라는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기도 하셨다.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가는 이번 연수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코펜하겐 시청과 장애인시설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노인시설과 고용지원센터를,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청소년지원 시설을 방문했다.

연수를 마친 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복지에 대한 관점 즉 ‘권리이자 책임으로의 복지’이다. 다시 말해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복지를 시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기도 쉽지 않기에,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리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권리로서의 복지만을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과연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권리로서 가사지원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불만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복지관에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알리고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서비스 확대를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둘째,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하고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수원시)의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위원들에게 예산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데 여기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정부가 위탁하는 다양한 사업의 계약 및 사회복지사업들의 위탁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이를 시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이 있는 복지현안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정치인 및 시민단체들이 협력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원시의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에는 시의회가 권한이므로 복지에 관심 많고 일 잘 하는 시의회 의원을 격려하고 동시에 좋은 정치인을 시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을 위한 행동방법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의 권리 보장과 확대는 가만히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달성되기 매우 어렵다. 나 스스로 움직일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물론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스웨덴도 지금의 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선례를 통해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바로 ‘함께 가면 천천히도 괜찮아’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김선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유익하고, 즐거운 해외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이번 『북유럽 민·관 지역복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수원시 의회 의원님, 학계 교수님,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수의 의미가 더욱 컸다고 생각하며, 복지 선진국을 체험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음.

□ 높은 세율에도 국민들 수긍(사회복지정책 재원 확보)

○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을 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약한 것은 정치와 행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복지 혜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민의식 필요

□ 장애인·노인·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배려(정책, 시설 등)

- 북유럽국가의 경우 대부분 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혼합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대나 편견 없이 잘 운용되고 있었으며,
-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부 책임하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한 노인의 소득보장, 돌봄, 주거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미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음.

□ 친환경적이고, 소박한 생활

- 덴마크의 경우 낙농국가이자 바이오 산업, 건축 디자인 등 세계적인 나라이나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 수송분담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됨
- 특히, 이번 연수국가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로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소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 없이 검소하고 친환경적인 소박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음.



8박 10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많은 나라를 둘러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숙지하기는 어렵지만 북유럽 3개국의 문화와 지역특성, 제도 등을 어느 정도 접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세계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음.





김경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사람 존중, 약자 보호, 관계의 공평성 유지, 기회의 균등과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고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회는 복지와 인권이 발달해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연수에서 얻은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전 불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정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간혹 길을 걷다가도, 물건을 사러 갔다가도,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한테서, 친한 친구를 만날 때도 내일이면 세상에서 강제로 없어질 사람처럼 근심이 가득한 얼굴들을 자주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런데 심지어 덴마크의 마리화나를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것처럼 피어대는 자치구인 ‘크리스티아니아’의 그 자욱한 연기와 뿔뿔이 난 냄새가 어우러져 피어오르는 지저분한 거리에서도 얼굴이 구겨져서 있는 주민을 볼 수 없었다. ‘난 지금 행복합니다’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덴마크는 인간미가 있었다.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사회 같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덴마크가 좋았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함이 배여 있는 표정들이 좋았고, 젊은 남성들의 말끔한 슈트차림에도 자전거를 타도 어색하지 않는 멋과 어울림이 좋았다.

코펜하겐, 장애인센터 방문시에도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첫 한마디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은 덴마크 국민이다’라고 자긍심 있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언제든지 사회 속에는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라고 믿게 하는 교육시스템,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한다라는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하여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문화, 기회의 균등으로 내 노력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최고가 아니어도 현실적인 기대에 만족하는 라이프 스타일, 네가(이웃이) 잘 지내야 나도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 직업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정책, 지갑을 채우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회, 나만이 뛰어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겸손, 역할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조화롭게 이루는 나라.



나는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도 금강석 같이 단단한 우월성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고, 우선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이웃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합의된 우월성들을 오랜 시간을 거쳐 숙성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덴마크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나와 내 이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살피며 가되 서두르지 않는 미래의 복지를 꿈꾸며,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올 때 오늘이 생각을 해 볼 것이다.





김명진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사람 중심의 '태내에서 천국까지'를 보고 배우고 꿈꾸다.

3월의 어느 날, 복지관으로 접수된 2015 해외연수단 선정 공문은 저에게 큰 설렘과 기대로 다가왔습니다. 15년여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막연한 동경으로만 다가왔던 북유럽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곳의 선진 복지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연수 단원분들과의 만남, 사전 준비 모임 및 스터디를 통하면서 더욱더 생생하게 연수 현장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진행된 세미나와 스터디, 그리고 기관 조사를 통하여 북유럽의 복지정책과 그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들에 대해 점점 더 궁금증이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출발했던 해외 연수의 첫 방문지는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먼저 코펜하겐 시청 사회복지부서를 방문하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국가의 사전 예방에 대한 복지정책과 의지였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복지 국가를 이룩하며 사회 정책을 구축해 온 덴마크의 경험에서 나온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LYNGHUSET 장애인센터 방문을 비롯하여 4일간이 일정을 덴마크에서 보내면서 전 생애에 걸친 복지를 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특히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의 방향이 깊이 와 닿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교육시켜 나간 것이 덴마크 복지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일정 이후 스웨덴으로 이동하여 스웨덴 현지의 한국 교수인 최연혁 교수님과과의 간담회, 노인너싱홈 Kampementets vård- och omsorgsboende 방문, Arbetsf örmedlingen 고용센터 방문, 핀란드에서의 청소년 지원센터 Annaltalo 방문과 설명을 통하여 북유럽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근간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의 복지정책의 시작과 근간에 있어서의 차이도 극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방문한 국가와 시설간의 차이점은 분명 있었으나, 공통된 방향과 정책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 권리로서의 복지 참여와 책임, 공공의 책임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고세율과 이를 통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현 정책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선 '태내에서 천국까지'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과 신념들은 매우 부럽기도 하였고,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적극적 시민권 발휘가 이루어져야 복지국가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졌습니다.

스웨덴에 방문하였을 때 최연혁 교수님께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관습법인 "안테의 법칙(Jante Law)"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명 '보통 사람의 법칙'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를 드높이면서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복지국가모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와 신념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진 국가이지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가치를 교육하고 자라게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등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모두가 한꺼번에 변화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부터, 그리고 이 연수를 참가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도자로 변화되어 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은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곳, 수원시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서 시작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 동안 배려와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연수단원분들을 통해 저 역시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진행된 지역 탐방을 통해 힐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또한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진 복지 국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광고노인복지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기회가 계속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구 (Happy해누리작업장)

*본 것이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조금더 다가가는 전문 복지사가 되겠다*

설렘 속에 피곤함을 잊은 채 덴마크 도착 바로 장애인 직업센터로 직행
그곳 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열정어린 강의를 부러움 속에 경청을 시작으로
스웨덴 핀란드 까지 북유럽 3개국의 복지를 눈으로 마음으로 느꼈다.
세금이 31%~ 36% 까지 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의 일상사에 즐기며 쓴다.
보육, 교육, 의료, 일자리 등 걱정이 없는 복지천국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세금을 차등부과하고 이런 복지 어떨까?
우리나라도 3개국 못지않게 복지분야를 다하고 있는데 아니 자원봉사는 우리나라가 더 활
성화 되고 더 잘되어 있는 듯 한데 왜? 우리는 복지선진국이 아닐까?
장애인 등급을 왜 하느냐? 누가하느냐? 왜 그것이 왜 필요 하느냐? 라는 되물음에는 말
문이 막혔다.

너싱홈, 청소년 지원센터, 직업소개소, 등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든 기관이 투명하게 이용자 중심의 복지를 하다 보니 지도점
검이나 감사가 거의 없고 큰 잘못의 민원이 발생시 철저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취소 조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 안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으로 기관을 운영한다.

자유롭고 정적이며 여유로움과 깨끗한 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자세 이것이 일등시민이요
선진국민이 아닐까? 국민 GDP나 GNP가 높은 것 만 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를 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자는 인식
보편적 복지
장애, 비장애를 넘어 누구나 다 같이 공평한 복지 평등한 사회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출발이요 정점인 것 같다.
복지국가, 행복국가 가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위정자의 청렴성, 국민전체의 통합된 의견, 인류애,
가 필수인거 같다.



지면을 빌어 북유럽 3개국 벤치마킹을 갈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것이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전문 복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수원시설버인력뱅크)

앞서가는 복지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복지선진국가로 널리 알려진 북유럽 3개국 방문을 떠나는 시간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 연수를 통해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방문을 통하여 복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처음 방문한 지역은 덴마크 코펜하겐!

두바이공항을 경유하여 도착한 코펜하겐의 하늘은 우리의 방문을 환영하기라도 하듯 날씨가 맑게 개이고 있었다. 도착 즉시 방문한 곳은 코펜하겐 시청 가족복지과로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LYNNGHUSET 장애인센터로 장애인생활시설로 장애인 시설운영과,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코펜하겐 투어는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선진복지를 이끌고 있다는 스웨덴이었다.

스웨덴은 중세유럽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노벨박물관을 둘러 우리나라 유일 노벨상을 수상한 전 김대중 대통령의 스크랩화면을 보며,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정치학박사인 최인혁교수를 만나 정치와 복지의 관계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최인혁 교수는 복지와 정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정치의 발전이 복지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매우 가슴에 와 닿는다. 또한 유권자로써의 정치참여가 복지의 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복지의 발전을 이루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다음날 방문한 ATTENDO에서 운영하는 Kampementets vård - och omsorgsboende 너싱홈을 방문하였을 때 노인복지를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는데 복지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의 자부심은 웬지 노인복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들게 했다.



이후 국립직업소개소와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청소년문화예술센터인 안나의 집을 방문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이었지만 나름대로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았다. 아무리 복지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높은 세금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그 나라들의 모습에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대하였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나라의 복지를 이끌어 가는 기본이 아닐까 한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나 자신에게 넓은 안목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김희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북유럽 사회정책 부럽다! 갈 길이 멀다 그래도 가야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경과 보고

1. 덴마크사회정책

- 코펜하겐 시청 사회 복지과 방문 5 /22 14시 20분
- 장애인센터 5/22 16시

2. 스웨덴사회정책

- 예테보리대학교 최연혁교수 5/26 13:30
- 국립지역소개소 5/28 14:00
- 노인 복지기관 5/27 10:00

3. 핀란드 사회 정책

- 청소년 예술센터 안나의 하우스 5/29 10:30

이번 북유럽 연수에서 북유럽 3개국 총 6곳을 방문하고 각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보고 듣고 만지고 알아보았다. 이번 2015년 북유럽 사회정책 벤치마킹의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본정신이다. 그 정신은 평등과 인권의식이었다. 북유럽 3개국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민주적인 소양과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면서 오랫동안 (150년간) 끊임없이 애를 써 온 것이다. 그 바탕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온 역사가 있었고 척박한 자연 환경이 있었다.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은 함께 해야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정치가로서 활동하고 그들을 믿고 맡기는 정치를 해온 것이다.

특히 덴마크의 선거참여율은 99.7% 이것도 줄어든 것이라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높은 참여율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란다. 이것 참 참으로 까마득하고 먼 나라 이야기였다. 우리의 선거 참여율은 30-50%에 비교해서 너무 달라 비교해도 될까 싶었다. 그래서 덴마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믿음은 높은 세금을 기꺼이 내고 그 권리의식도 높은 참여율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했습니다.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



코펜하겐 시청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복지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프로그램만 가져가면 안되겠구나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평등의식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장애인이나 마약을 하는 자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들의 정책과 배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마약하우스가 놀라웠습니다. 마약중독자가 많은 마을의 주사기 오염으로 죽어 가는 마약중독자 예방을 위하여 마약하우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정책을 어떻게 보아야할지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행동은 옳지 않지만 보호와 안전은 기본으로 생각해야한다. 우리 시민이니까 였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냐의 대답은 오랫동안 그들이 그 지역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하우스를 만들었다고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장애인센터 방문시

우리에게 설명해준 센터장의 이전 경력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실무자인 그는 실무자로 일하다가 7년 정치가경력과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고 다시 또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정치가들은 경력을 가지면 실무자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도 하지 않으니까요. 장애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이었던 그곳에서는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너무 달랐다.

장애인시설의 전문인력의 부족의 해결, 서비스의 질의 불평등, 탈시설화 등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접근방법은 혁신적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방법이었다.

전체 조직에서 장애인 파트를 특화하고 그 시설의 작은 조직을 전문화 통합하고 조직을 한 구조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하고 다시 훈련하고 바꾸어 가는 노력을 들이면서 아는 방법이었는데 왜 우리는 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싶었다. 정부가 주체여자인가? 우리도 모든 지침은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충분히 논의가 안돼서 일까?... 이러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만들어진 정책임이 분명했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시설의 전문화를 통해 전문의사나 임상병리사를 큰 조직으로 함께 채용하여 전문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탈시설화를 국가가 추진하면서 각각의 주거공간을 가지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도록 인력확충하고 서비스인력은 전문적으로 교육된 인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자원봉사인력은 주로 간단한 활동위주서비스에만 투입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보살피는 기구의 과학적인 전문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새로운 기구 개발 등을 꾀하고 있었다. 이노베이션, 창의적 개발과 함께 수익구조와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있었다.

서비스 질의 불평등은 시설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조적인 조직변화를 통해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성적 요구에 대해서도 인정은 돼지만 성매매 여성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2010년) 되어있고 자위행위에 대한 분비물처리는 오줌과 같은 분비물처럼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정책으로 다운증후군이 유전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므로 결혼을 해도 아이출산을 하검사하여 출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문제도 과학적으로 정책을 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많이 줄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최연혁교수와의 만남은 우리나라 만연하고 있는 부패가 스웨덴 사회에도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여 지는 우리나라의 부패극복가능성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가에 생각이 복잡해졌다.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어디부터 시작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스웨덴 국립지역소개소에서

우리나라와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음은 분명했지만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소규모임을 알 수 있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처음 직업을 갖는 자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가 중소기업에 주는 많은 혜택이 궁금해졌다. 스웨덴 노인복지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누구나 필요시 들어갈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치매와 치매가 아닌 일반 시설로 구분된 시설은 깔끔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귀감이 될 만 했다.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집처럼 꾸며진 환경은 무척 부러웠다. 많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자식들이 돌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전문가이지 않으면 그들을 돌볼 수 없다는 말에 특히 더 방점이 찍혔다.

핀란드의 아나탈로 예술센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예술은 경험해야하는 권리이다. 예술교육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학교, 교육기관과 연계 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 아동 청소년 참여와 그들의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장이 많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북유럽 3개 국가와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유럽 3개국의 복지 정책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북유럽국가 그대로의 프로그램과 제도만을 베껴 오는 것은 그 실행의 결과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밑바탕에 흐르는 평등과 인권의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본바탕의 정신(홍익인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영설 (사. 작은행동 한사랑)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면 안전한 복지국가의 초석이다.

북유럽 사회정책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사전 모임과 스터디를 통해 북유럽의 사회정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스터디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자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북유럽 사회정책 해외 벤치마킹을 수원시에서는 잘 선택했다고 보고 이러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한다. 이제부터 그곳에서 새로이 알고 느끼고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한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치적 참여가 높아 투표율이 93%(덴마크) 정도이다.

책임 있는 정부를 통해 국민은 소득의 40%~70%까지 세금으로 내고 무상교육, 강력한 고용정책, 노후에 대한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불신으로 소요되는 치안, 교육, 질병, 음식판매, 교통, 직업, 질병, 교통 등에 경비가 절감되는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특히 무상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소득의 평준화(연대 임금)제도를 통해 직장간 직장내에 대한 이질감이 작고,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고, 노후 걱정이 없으니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적은 나라가 북유럽이라 느껴진다.

우리도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의 아이들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시작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장점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은 복지국가를 위해 15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사회보장제도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조금하계 선진복지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100년을 계획하고 우리의 장점을 개발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직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정부, 국가에 대한 신뢰, 정치인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직해야한다. 정직하며(정직학교 운영), 세금을 많이 내도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집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연수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반성하는 계기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유럽 사회 정책을 알리고 수원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지복지를 달성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더 나은 삶과 행복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길 갈망한다.





이옥재 (동광원)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북유럽 연수.

8박 10일의 일정으로 방문한 북유럽 3개국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첫 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풍차의 나라 덴마크, 낙농국가이면서 초원이 펼쳐져 젖소가 많겠지? 라는 상상을 하면서 도착한 코펜하겐. 사회복지부서로 이동하여 담당 팀장으로부터 덴마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이 나라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빈부 차이가 없으며 모두가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이 증대되었으며 국민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세금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정책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정당집권이 바뀌어도 계획된 업무는 중단이나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된다는 것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가는 곳곳마다 잘 정리된 자연경관과 집집마다 화분에 꽃을 심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여유와 행복수준을 느낄 수 있었다. 아동, 장애인을 위한 처우에서는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줌으로써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세워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매우 인상 깊었다. 오래된 건물들도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 것에 대한 보전이 우선으로, 보수하고 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2011년도에 마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위생상 안전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복지를 예방적인 차원으로 실행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은 현지 한국인인 최연혁 교수님을 통하여 스웨덴의 전반적인 복지를 듣게 되었다. 복지출발 국가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스웨덴이며 아이들 교육에서도 ‘넌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며 인간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하였다.



또한 책임 진보정당이 중요하며 변화는 위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와 닿는 부분이 되었던 것 같다.

세 번째로 핀란드에서 방문한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고 있었으며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식과 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같다.

북유럽의 복지정책이 우리에게겐 요원해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모아서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금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신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조기연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복지의 시작은 청소년복지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지난 2015. 5. 21 ~ 5. 31 8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20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국, 해외의 선진이론 및 활동에 대한 벤치마킹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벤치마킹 3번의 사전미팅 및 교육 쉽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발 당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두바이에서 4시간 체류를 포함해서 첫 번째 방문국가인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20시간...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한 모든 위원들이 지치고 지친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막상 코펜하겐 시청을 도착하고 일정을 시작하면서 지난 일정의 피로는 어디로 간 듯 모든 위원들의 눈이 초롱초롱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청사 건물과 여러 모양 조각상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공식일정으로 코펜하겐시청 사회복지부서 코펜하겐시의 사회복지정책 및 사례에 대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위함이라는 내용과 시내에서 합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중독자들에게 안전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을 사회복지 시설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공식일정으로 코펜하겐 시에서 운영하는 LYNNGHUSET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브리핑을 하는 기관장의 자부심과 1명의 장애인을 care 하기위해 9명의 직원이 24시간을 care 한다는 말에 놀랐으며 어마어마한 예산에도 놀랐습니다.

덴마크의 대한 가이드의 설명 중에서 머리 깊게 남은 말은 덴마크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당을 정하고 끊임없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93%의 투표율을 낸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정치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으로 이동해서 짧은 시간은 줄이기 위해 햄버거를 먹으면서 시간을 맞추었던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빠 이동을 해서 만난 한국인 최초스웨덴 교수 최연혁교수님과의 교수간담회에 서 과거가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다는 말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공식일정 Kampementets vård- och omsorgsboende 너싱홈을 방문하여 기관브리핑 및 시설견학을 할 때는 개인의 방에 어르신들의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이 쓰던 농이나 서랍장 또는 물건으로 방안을 꾸민다는 말에 그 세심한 배려에 놀랐으며 한국에서도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하에 마련된 휴식공간에서는 썬텐을 즐길 수 있도록 모래도 마련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세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Arbetsförmedlingen 고용센터에서 스웨덴 복지모델 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완전고용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을 들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센터 내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마지막 국가인 핀란드, 가장 기대가 되는 국가였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지원센터 Annaltalo시설 시찰 및 청소년 복지정책 브리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사전교육에서 봤던 것처럼 아난탈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예술교육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핀란드의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감동도 받고 배움도 많고 부러운 부분도 많았으며 아쉬움도 남는 벤치마킹 일정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식일정을 마치고 매일 밤 위원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도 선진복지를 위해서 멀리 생각하며 어린이 청소년들부터 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대한민국도 아니 수원도 선진 복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란 믿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관호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꿈은 꾸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연수단과 함께 꾸는 꿈이기에 힘들어도 몇 십 년 후의 복지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연수였습니다.*

북유럽 3개국 연수가 발표되었을 때, 최고의 복지선진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기에 내려놓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메일로 선정결과를 받았고 기쁨도 잠시, 이내 묵직한 부담감이 느껴졌다. 첫 OT날, 협의체 시작부터 함께 했던 선배님들과 익숙한 얼굴을 보며 그 부담감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교육과 간담회를 하자며 서로 결의했다.

연수를 준비하며 새롭게 다가온 “국민의 집”

첫 사전교육은 스웨덴에서 직접 복지를 경험하고 설계했던 신필균 선생님께 복지와 역사, 정치, 국민에 대해 들었다. 1928년 스웨덴 총리 한손은 ‘홀륭한 집에서는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알아보지 않으며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국가를 가정에 빗대어 설명한 국민 의 집을 다시 들으며 집처럼 편한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었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선진복지의 시작은 관심과 배려

첫 방문지는 덴마크,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우리의 복지와 북유럽의 복지가 먼 거리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무엇을 얻어 올 수 있을까? 라는 기대와 부담으로 머릿속은 복잡해져 갔다. 첫 기관 방문 후 주말을 이용해 코펜하겐을 돌아보며 복지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삶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국회의사당 앞 주차장 대신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있었고, 국민의 네 가지 고통을 표현한 석상이 정문에 있었다. 그리고 투표율이 90%정도 된다는 말에 정당과 국민이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결정이 국민의 결정이라 믿고 신뢰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복지,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로 존중받는 복지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복지와 북유럽의 복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되는 우리의 복지와는 달랐다. 그 차이의 시작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간절히 찾고 싶었다. 그동안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고 공부했던 경험들은 복유럽복지를 단순한 프로그램만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게 했다. 시민의 욕구와 공공의 역할, 정책결정 과정의 어려움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하고 경청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자녀양육, 의료, 노인 등 전생애주기를 걸쳐 국민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고 있다. 70년이 넘는 한결같은 복지정책의 유지와 계층을 넘어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복지국가로 성장했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현장의 한 사회복지사로서 마음가짐

연수를 마무리하며 대안보다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낀 점이 많음을 알았다.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복지의 가치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의 복지,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복지,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복지 등... 혼자라면 힘들 수 있지만 이번 연수를 함께 다녀온 선후배님들과 함께라면 수원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진윤태 (세류2동주민복지협의체)

복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재정적 뒷받침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원시에서 8박10일 동안 북유럽 사회정책 해외 벤치마킹을 통하여 잘 갖추어진 복지 선진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뜻 깊은 연수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칼스버그 맥주는 매출의 50%를 사회공헌사업에 기부하며, 스웨덴의 발렌베리가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 기업도 본받아 기업과 사회가 서로 공생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복지라 생각하며 선진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결된 공감대 형성이나 그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진정한 선진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위하여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하경희 (아주대학교)

긴 호흡으로 복지미래를 그린다!

이번 연수는 나 스스로 복지에 대해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떠나기 전에는 문헌을 통해 알고 있던 북유럽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달라 과연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지 막연했다. 하지만 연수를 통해 느낀 점은 복지가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이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 정치적인 구호, 단기적인 기법으로서가 아닌, 긴 호흡으로 10년 후의 복지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소위 유럽복지 선진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연수팀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서는 소중한 기회였다. 수원의 복지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복지인 만큼, 수원시 유럽연수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첫 유럽연수인 만큼 기관방문을 위한 준비나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못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하지만 이번 첫 연수경험을 토대로 매년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나가길 기대해 본다.





하창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철학은 부재, 정치는 70년대, 경제는 90년대, 복지는 논쟁중인 한국
반면 복지, 철학, 정치, 경제, 의식수준이 고르게 발전한 나라들을 보고 오다.*

2015년 3월에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외연수단에 선정됨을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문자한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협의체 팀장님께 전화를 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북유럽의 선진복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협의체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여 제가 해외연수단에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맞벌이하는 집사람과 같이 육아와 가사 등을 일정부분 맡아서해야 하는 저로써는 8박11일이라는 긴 시간을 해외로 나가는 선뜻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과 협의체 팀장님의 조언으로 어렵사리 결정하고 북유럽연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녀온 지금으로써는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한 기회를 잡았다는 느낌이고 책과 강의를 통해서 배운 수준을 넘어선 실제의 체험과 나라별 역사의 변천을 통해서 그 들이 치열하게 얻어낸 인권과 복지를 체감하여 복지발전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더욱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북유럽의 복지란 한마디로 ‘공동체적 집단의 사고가 반영된 사회적 책임의 분배를 실천하는 나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복지는 재분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나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들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고민 중이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시행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러한 것을 시행하기 위한 공감대형성과 긴 호흡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과정 등이 참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에도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람중심(수요자중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느 곳에서도 존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약물(마약)중독자들이 안전하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위험한 주사바늘이나 위생상의 문제로 길거리에서 약물투약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공간의 마련은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의식이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기관별로 방문하면서 느낀 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링후스 장애인센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님이 자신의 수입의 6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일 당연시 되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귀저기를 바꾸는데 밤중에 이 부분이 장애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IT강국인 한국에서 힘써달라는 부분, 민간이 복지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이윤추구를 위해서 귀저기를 자주 갈아줄까라는 부분등 귀저기를 입는 행동을 보이면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강의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혁 교수님의 말씀을 끝으로 제 감상문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최고 지도층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수의 찬성이 아니라 다수가 부정하지 않으면 진행하라. 우리의 교육은 남과 다르다 낫다로 가르치지만 그들은 너는 남들과 같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힘이 바로 공동체적 이해와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배려와 공감으로 더욱 깊게 함의 된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연수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북유럽연수가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연수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1기 북유럽연수생으로 지지합니다.



황호성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오가는 길 함께 동행한 한솔밥이 복지의 시작이다.

유럽에서 돌아온 지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낭만적인 발트 해 밤바다의 추억, 크루즈 실자라인호의 선상에서 물링을 만끽하며 풍성한 저녁으로 만찬을 즐겼고 협의체 위원님들과 밤이 깊도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여행길 내내 유럽의 길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유가 몸에 배어 있어 보였다. 특히, 실자라인 선상에서 만났던 핀란드 아가씨 로라는 집에 자신의 말이 있다며 페이스 북에서 자신의 애마사진을 보여 주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유럽에서 체험하는 듯했다.

오가는 항공편 이용길은 참으로 고난스러웠지만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인상 깊었고, 여행기간 내내 추억을 지울 수 가 없다.

가는 곳 마다 묻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지만 알아듣지를 못하고 영어로 말 할 줄을 모르니 답답할 수밖에 그나마 말귀를 알아듣는 젊은 분들이 부러울 뿐 이었다.

평소 우수 시책의 동경이 되었던 국가들의 환경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았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할 때 어떻게 즐기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생활기반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가는 국민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국민은 불만 없이 세금도 잘 내고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복지 시스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다만 우리는 재원이 없고 어떻게든 복지재원을 조달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복지가 훨씬 잘하는 면도 많다. 다만 나라가 돈이 없고 정부가 가난할 뿐이다.

다만 기억에 나는 것이 있다면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기가 없는 바람이 불고 무척이나 신선한 공기가 참으로 좋았다는 느낌과 호흡만 하여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교회가 공연장으로 변해가는 유럽의 현실을 보며 주일날 처칠교회에서 이영설장로님이 기도해주시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갖게 된 것과 삼남매의 행적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발품을 팔고 챙기고 뒷수발을 다해주신 김형인 단장님을 비롯한 이인숙 총무님과 임복희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일정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민한기위원님과 조명자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먼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 한분 한분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새겨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함께 꿈꾸고, 배우고, 고민하는 동지를 만나 감사하다

준비과정.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외 벤치마킹사업은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6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연수를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복지국가 1번지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을 방문하게 되어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연수를 준비하였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수단 구성 및 수행여행사 선정을 위해 2월부터 3차례의 평가선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된 연수 진행을 위한 연수단 기획회의, 신필균 선생님의 북유럽 사회정책 세미나, 스웨덴에 계시는 최연혁 교수님과 메일을 통한 자문, 연수단 내부 학습 및 OT 등, 단일 기관에서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보는 단편적 연수가 아닌 북유럽의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 학습 과정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북유럽 복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중시로부터 출발한다

연수국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시청 사회복지부서와 LYNHUSET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였고, 스웨덴에서는 예테보리 최연혁교수님, 노인네 싱홈Kampementets vård-och omsorgsboende, 국립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와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Annaltalo를 방문하였다. 시청, 장애인, 노인, 청소년, 고용 등 다양한 복지기관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 느낀 공통점은 ‘개인 생활의 존중’과 ‘체계적인 제도안의 유연성’이라는 점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시설이 공동생활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반해, 이곳에서는 생활이 편리한 집(개인공간)의 다른 형태로 개별적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와 개인 생활이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스웨덴 복지의 바탕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들었는데 복지 이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연성을 가진 모습에 놀랐다. 덴마크의 히피공동체 크리스티아니아를 보면서 덴마크의 제도 밖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살고자하는 자유지역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포용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부러움이 남았다.



투표율 80%, 시민이 복지국가를 만든다

북유럽의 투표율을 듣고 깜짝 놀랐다. 덴마크 87%, 스웨덴 82%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50%대 투표율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참여율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정책은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이 스웨덴 국회의원이라고 들었고, 정치가의 특권이 없고, 정치가 스스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칭하는 나라. 토론식 교육방법과 어릴 적부터의 사회·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사회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 정책 공개를 통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고 한다.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있어서 복지국가가 가능하구나, 국민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재발견. 연수, 사람에게서 감동과 힘을 얻다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연수였다.

북유럽 연수를 준비하며 메일로 연락드린 최연혁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스웨덴에서는 학교와 연구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4시간 정도의 거리인 예테보리에서 스톡홀름까지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차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자 했던 열정적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누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연수단, 배려하는 사람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일상에서 업무로 뭉친 어깨 근육이 사람에게서 받은 감동으로 저절로 완되는 기적을 맛보았다. ^^ 맑은 공기와 아침마다 즐겁게 함께한 운동 덕분에 일지도 모르겠다. 복지체계 뿐 만 아니라 먼저 인사를 건네는 덴마크 사람들,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과 자연 풍경도 정말 멋졌다.

이번 연수단은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공무원, 민간 현장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구성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생각을 나누는 즐거운 기회가 되었다. 기관방문 후 저녁 토론 과정에서, 이번 연수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 정기적인 학습세미나를 통해 북유럽 복지를 현장에서 고민하는 수원의 복지 씨앗과 복지 마중물이 되자는 다짐을 하였다. 함께 고민하고 꿈을 나누는 동지들이 생겨서 든든하고, 감사하다.



참고문헌

1. 주한스웨덴대사관
2. 주한덴마크대사관
3. 주한핀란드대사관
4.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최연혁)
5. 복지국가 여성연대 "여성 · 복지 · 정치" 신필균

**2015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북유럽 사회정책 해외연수 보고서**

발행일 : 2015. 7. 7.
발행처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768
전 화 : 031) 898-9851~4
팩 스 : 031) 248-1906
홈페이지 : <http://www.swwelfare.org/>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업체